

이름없는 이들이 다져가는 겨레사랑의 자리

우리말 우리얼

제 138 호 2024년 12월 2일

◀ 차례 ▶

한글 괜찮아? 한글은 한자와 영어에 짓밟히고 있다!	2
<우리말 동시> 칠혹의 밤을 안고 이오덕	9
<우리말 동시> 어머니님 생각 김리박	15
<우리말 동시> 팽나무 권순채	17
<우리말 생각라기> 쉬운 말로 푸르게 최종규	20
묘사 분류집 최영자, 최응구	24
자유 도시만이 사람의 희망이다 우인오랑	36
툰드라 - 북극권 홍석화	56
동물과 나누는 마주이야기 증정광자	67
좋은 책을 이렇게 번역하지 맙시다 편집부	81
알립니다	92

펴낸 곳 :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전화: 010-4715-9190(이대로)

주소 : 충주시 신니면 광월리 356번지 이오덕학교

전자우편 주소: 25duk@naver.com, idaero@hanmail.net

누리집 주소 : 우리말 우리얼 <http://cafe.daum.net/malel>

한글 괜찮아? 한글은 한자와 영어에 짓밟히고 있다!

지나친 영어편식교육과 영어 섬기기 그만하자

문체부는 2024년 한글날 한글주간에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10대 실천과제’를 발표하고 ▲아름다운 우리말 일상 환경 구축, ▲언론·방송 보도 용어 개선, ▲온라인 국민 참여하는 캠페인(행사) 추진, ▲청소년 국어능력 제고, ▲공공기관의 쉽고 바른 우리말 사용, 이 5대 분야에 대한 과제로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바로잡아야 할 것은 잘 짚었는데 발표문부터 구축(쌓기)이나 제고(높이기)처럼 어려운 일본 한자말로 되어있어 섭섭하다.

요즘 학생들이 한자말을 모른다고 문해력이 떨어지니 어찌니 말이 많은데, 정부부터 이렇게 일본 식민지 국민교육으로 길들고 뿌리내린 일본 한자말을 자꾸 써서 말글 문제가 더 꼬인다. 한글이 살고 빛나려면 이런 일본 한자말부터 버리고 쉬운 우리 토박이말을 살려서 써야 한다. 교과서와 공공기관 알람 글에 왜말(일본 한자말)을 자꾸 쓰니 국민들과 학생들이 배우고 쓰게 된다. 이 짬 되면 나랏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본과 결탁해 엉큼한 속셈을 부리는 것인지 의심될 정도이다. 우리말을 살리고 한글을 빛내는 일에 일생을 바친 사람으로서 오늘의 우리가 나라를 일으킬 길이 무엇인지 밝힌다.



▲ 올해 한글주간 알림글(왼쪽), 이번 한글날에 유인촌 문체부장관이 한글단체 대표들과 세종대왕 동상에 꽃을 바쳤다. 그리고 다 함께 한글이 태어난 경복궁의 광화문에 한글현판을 달자고 다짐하였다(오른쪽).

그래도 올해 “한글 괜찮아?”라는 구호는 괜찮았다. 요즘 한글은 일본 강점기에 일본 식민지 국민교육으로 길든 왜말을 그대로 쓰는 데다가 미국말까지 판치고 있어 죽을 맛인데, 이 한글과 우리말을 한 번 걱정하고 생각할 기회를 주었기 때문이다. 유인촌 장관이 한글단체 대표들과 한마음으로 한글과 세종정신을 살리려고 하는 것도 괜찮았다. 그러나 그 구호도 한글날 한 번 떠드는 말로 그치니 아쉽다. 좀 더 세차게 꾸준히 우리말을 살리고 한글을 빛낼 일을 해야 한다. 2013년 문체부 김혜선 국어정책과장은 한글날 공휴일 지정에 힘쓰면서 언어문화 개선운동을 힘차게 한 일이 있다. 그건 한글을 빛내고 우리말을 살리는 모범 사례인데 그 뒤 문체부 국어정책과장과 장관이 바뀌면서 흐지부지되었다. 국어정책을 잃어버린 지난 10년이였다.

그래서 우리 말글살이가 몹시 어지럽게 되었고 제멋대로다. 영어 마구 쓰기는 이제 손을 대기 힘들 정도다. 간판은 한글로 써야 한다는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있지만 지키지 않는다. 우리말을 살리고 바르게 써야 한다는 국어기본법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있으나 마나다. 지키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없어서다. 일반인들은 말할 것이 없고 요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기관 알림글까지

영어를 마구 섞어서 쓰고 일본 한자말이 가득하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도시요 한글과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이 태어난 서울시가 앞장서서 우리 말글살이를 어지럽히고 있다.



▲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의 세종대왕 동상을 에워싸고 있는 설치물(왼쪽)과 시민들에게 보내는 알림글(오른쪽)에는 온통 영어인데 이것은 우리말을 짓밟고 국어기본법을 어긴 것이다.

부산시는 부산 출신 김영삼 대통령이 영어 바람 일으킨 것을 잘했다고 생각 하는지, 부산시를 영어상용 도시로 만든다고 나대더니 새로 생기는 마을 이름을 영어로 짓겠다고 한다. 해운대에 ‘달맞이길’이란 우리말 길 이름을 문탠로드(Moontan Road)라고 영어로 바꿨다. 문탠은 영어사전에 없는 낱말로 부산에서만 쓰고 있다. 선텐(햇볕 쬐기)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달빛 쬐기’라는 말이 왜 필요한지 알 수 없는 외국인은 얼마나 황당할까. 달빛 쬐는 것과 달을 맞이하는 것은 말에 담긴 뜻도 다르다. 부산시 또한 서울시처럼 국어기본법을 어긴 것이다. 그래서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은 서울시와 부산시를 우리말 으뜸 해살꾼으로 뽑아 그 잘못을 알려주었으나 듣지 않는다. 거리 영어 간판은 자꾸 더 늘어나고 아파트 이름이나 회사 이름 또한 영문으로 짓는다. 한글이 짓밟혀 죽고 있다. 정부가 이러면 국회나 지방자치의회가 법을 지키도록 안 지키면 처벌한다는 법 조항을 만들어서라도 바로잡아야 하는데 모른 체 한다.



▲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시를 영어상용 도시로 만든다더니 이렇게 영어 제목으로 치르는 행사를 좋아하는 것 같다.

한글학회 선열들이 일제 강점기에 목숨까지 바치며 지키고 갈고닦은 한글이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을 세운 뒤에도 일본처럼 한자를 써야 한다는 사람들과 문자 전쟁을 해서 한글을 지키고 살렸다. 이제는 신문이고 책이고 한글을 많이 쓰는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행정, 교육, 학술, 전문 용어가 거의 일본식 민지 국민교육으로 길든 한자말을 그대로 쓰고 있어 한글이 빛나지 못하고 있다. 요즘 언론에서 학생들이 한자말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떠드는 “우천시, 서행, 금일”들이 바로 왜말(일본한자말)이다. 한자로 쓴 왜말을 우리식 한글로 쓰고 읽으니 우리말인 줄 알지만 그 한자말은 우리말이 아니다. 이 말들을 “비올 때, 천천히, 오늘”들로 바꾸어 쓰면 알아보기 쉽다. 그런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일은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말을 알아보려면 한자교육을 하고 한자로 써야 좋다고 한다. 참으로 답답하다.

이제 한자말을 버리고 본디 있던 우리말을 살려서 쓰는 말 다듬기에 힘을 써야 한다. 조선시대까지 쓰던 중국 한자말과 일제 강점기 길든 일본 한자말을 그대로 한글로 적어서 사람들은 그 한자말들이 우리말인 줄 안다. 그러나 그건 거의 발음하기도 어렵고 귀로 들어서 알아듣기도 힘들다. 거기다가 이 한자말은 같은 소리로 나는 말이 열 개가 넘는 말도 수두룩하여 앞뒤 말 흐름을 보아

야 하는데 토막글로 쓰니 더 알아보기 힘들다. 이제 한글은 많이 쓰는 나라가 되었으니 한자말을 우리 쉬운 말로 바꾸는 말 다듬기를 하고, 나라말을 바르고 쉽게 쓰기를 해야 한다. 그리고 외국말 마구 쓰지 않기를 해야 할 때이다.



▲ 한글단체가 문자 전쟁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치열하게 싸워서 이렇게 신문도 한글로 쓰는 나라를 만들었지만 왜말인 한자말을 그대로 한글로 바꿔서 쓴 것이라 이해하기 힘들다.

그래서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은 올해 한글날에 일본 식민지 국민교육으로 길든 일본 한자말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푸른배달말집(사전)을 낸 최한실 님과 한자말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알려주는 일을 하는 구자행 님을 우리말 지킴이로 뽑았다. 그런데 이번 한글날에 일부 한자 송배자들은 엉뚱하게 학생들이 한자를 몰라서 글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다고 하니 신문과 방송 기자들은 문해력이 없다고 여기저기서 떠들고 있다. 그러니 재빠르게 경상북도도의 회(박용선 국민의힘)는 한자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겠다고 한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도 문해력 실태 조사를 한다고 나선다. 앞으로 어떤 교육청은 초등학교로부터 한자교육을 해야 한다고 나설 것이다.

이것은 우리 말글살이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고 더 꼬이게 하는 것이다. 몸

이 아프면 의사가 진단을 잘하고 처방을 잘 내야 한다. 왜 아프게 되었는지 원인을 잘 찾고 평소 바르게 살고 잘 먹어야 한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한자말을 잘 모르게 된 원인은 광복 80년이 지났는데도 일본 한자말을 그대로 쓰고, 지나치게 영어편식교육을 하느라고 국어교육시간이 줄었기 때문이고, 앞뒤 문맥을 알 수 없게 토막글로 줄여서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초등학생들에게 영어교육보다 국어교육을 더 잘하고 어른들이 쉬운 우리말로 글을 바르게 쓰는 것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다. 이번 한글날에 정부가 낸 언어문화 개선 10대 과제에도 그 내용이 있다.




▲ 2009년 한글단체가 정부에 법을 어긴 간판을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라고 권의하는 모습.

그런데 언론은 초등학생들에게 한자교육을 안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론 물이를 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초등학생들이 지나친 영어편식교육으로 국어공부 시간이 줄고 책을 읽고 글을 쓰지 않다 보니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한자공부까지 시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우리 어린이들만 잡는 꼴이 될 것이다. 학생들 교육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말글살이 문제가 풀리려면 지나친 영어편식교육과 영어 마구 쓰기 그만하고, 일본 한자말을 빨리 우리 쉬운

말로 바꾸고, 자신의 말로 글을 써서 말과 글이 하나가 되는 교육을 해야 한다. 일본에서 해방되고 8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일본 식민지 국민교육으로 뿌리 내린 행정, 교육, 전문용어를 그대로 쓴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도 그동안 한글을 살려 써서 우리 작가가 노벨문학상도 탔다. 이제 정부와 국민이 함께 조금만 애쓰면 우리 말글 문제도 풀리고 자주문화가 꽃 피어서 진짜 자주독립국, 선진국이 될 것이다. 이제 세계 으뜸인 우리 한글을 업신여기지 말고 하루빨리 중국 한문 섬기면서 뿌리내린 사대주의와 일본 식민지 교육으로 길든 식민지 노예근성을 뽑아버리자. 그래야 우리 말글이 살고 우리 겨레와 나라가 빛나 어깨를 펴고 살 수 있다. 그날이 오길 두 손 모아 빈다.

 **구자형**
2일 · 🌐

[2음절 한자+하다]로 된 말을 걷어내자 (3706)

- 자부하다 ⇨ 내세우다, 자랑하다
- * 알 만큼 안다고 자부했다.
(⇨ 내세웠다, 자랑했다)
- * 살기 좋은 도시라고 자부할 만하다.
(⇨ 내세울, 자랑할)



▲ 국어교사로 일하는 구자형 님이 한자말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글(왼쪽), 토박이 말 사전 ‘푸른베달말집’을 펴낸 최한실 님이 말 다듬기에 힘쓰는 모습(오른쪽).

<우리말 동시>

칠혹의 밤을 안고

이오덕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창립대표
1960년대 쓰신 시

칠혹의 밤을 안고
떨어지는 별을 안고

어떻게
살아갈까
못난 사나이

땅바닥에
무릎 꿇고
입술 깨물고

얼어붙은 심장으로
한곳을 지켜보면
먼 하늘

들려오는
천사들의
통곡이여!

이놈의 심장
이 얼어붙은 심장으로

빌어먹을 것 한 번 실컷 살아가
보자
이놈의 심장을!

뚝뚝 떨어지는 별을 안고
칠혹의 밤을 안고……
1963. 12. 15.

도깨비의 노래

칠혹의 밤은 도깨비들의 세상이

다.

호호호호…… 허공에서 땅바닥이
울리도록 웃어대고,

날고 뛰고 뒹굴고 곤두박질을 하
고 한데 붙어 지랄을 하고,

그러면 쿵쿵쿵쿵……

총소리가 함부로 터져 나와

무수한 별들이 하나하나 피를 토
하며 떨어지고,

드디어 마지막 남은 별 하나마저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안기고 나

면 침묵?

산악 같은 침묵도 잠시뿐

다시 호호호 도깨비의 웃음소리

보라, 그 찬란하던 생명들이 있던
하늘 여기저기에 요괴한 빛을 뿜는
거짓 별들을!

호호호, 구세주가 나타났다.

저것이 바로 희망이라, 자유라,
길이라, 아침마다 밤마다 경례를 하
라 호호호……

이 혼장을 몰라, 이 별을 몰라,
이마에 사쿠라 꽃이 피야 되나,
옆구리에 빨랫줄이 나와야 되나,
이별을 모르고 호호호……

날고 뛰고 뒹굴고 곤두박질을 하
고 한데 붙어 지랄을 하는 도깨비들,
칠혹의 밤은 도깨비들의 세상이
다.

1963. 12. 23.

바위

입을 다물라

눈물을 삼키라

미친 햇살을

널찍한 이마로 받아 올리라

다만 두 발만

끄덕도 않게 땅에 박고……

우리 모두

높은 산봉우리

크나큰 바위로 서서

천 년을 이대로 살아가야지.

1963. 12. 26.

소

날마다 무거운 짐을 나르고
 굳어진 눈밭을 다 갈고
 길마저 굳어져 돌맹이가 되도록
 짐을 나르고
 무릎까지 차이는 무릎을 다 갈고
 마지막엔 머리 위에 시퍼런 도끼
 를 받는 너.

이 아침 차가운 땅바닥 마구간에
 꿰어앉아

콧김을 뿜으며 우물우물
 양을 치며 눈을 감았다 떴다.
 너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내세를 믿느냐?

너는 필시 종교를 가졌나 보다.

그러기에 하느님의 아들도 마구
 간에서 났지.

이 아침 너의 모습을 가만히 엿보
 고 있으면

나도 갑자기 종교라도 가지고 싶
 구나.

나에겐 내세가 미덥잖고
 인간의 잔인성이 너무나 눈에 띈
 다.

그래서 이리도 모자라게 살아간
 다만

이 아침 너의 태연한 모습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산악 같구나!
 종교 이상의 그 무엇을 지닌 존재
 같구나!

1964. 10.

호수 1

산기슭에 번드기 드러누워

일어설 줄 모르고

움직일 줄 모르고

눈만 쾅하니 떠서

영원이란 걸 생각하는 철인(哲人)
 인가?

신화(神話)를 꿈꾸는 시인인가?

총소리도
아우성도
들은 척 만 척

날마다 고개를 넘어가고 넘어오는
무거운 짐 진 사람들도 본 척 만
척
조국도 없고
동포도 모르고

낚시꾼과 주정뱅이와
못 퇴태(瀨怠 · 느리고 게으름)를
불러놓고

물새들의 사랑이나 지켜보다가
바람과 희롱하고
아침저녁 인상파의 그림이나 감상하면
그만이다.

너는 이미
정체된 세월

보라! 너의 밑바닥이

어찌 되어 가는가?

거기
시시각각

흘러가는 물 때문에
모래와 흙이 쌓이고
머지않아 한 번은

산자수명(山紫水明 · 경치 좋음)
의 얼굴이 가시고
드디어 사막이 될 날이 오리니

너는 지금 일어서라

그때가 오기 전에
탁 터져 흘러가라.

성난 물줄기가 돼라.

생명의 물줄기로 흘러 터지라!

꿈꾸는 시인이,

생각하는 철인(哲人)아,

산기슭에 번드기 누워있는

게으름뱅이야!

1964. 10.

호수 2

영원을 향한
자연의 눈동자

물새와
실바람과
위즈위스의
고향

그러나 답답하다.

일어설 줄 모르는 호수여,
흘러갈 줄 모르는 호수여,
분노를 모르는 늙은 사색이여!

총소리도 아우성도 들은 척 만 척
사람들의 괴로운 표정도 외면하
고

오직 퇴태(濼怠 · 느리고 게으름)
를 예배하고

이기(利己)를 철학하는

기다리다 굴복한 사상이여!
미학(美學)이여!

조국도 동포도 모르고

너는 거기 번드기 드러누워

사막이 될 역사나 기다려라!

신화(神話)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날을!

1964. 10. 31.

침묵한 산천을

침묵한 산천을

절뚝절뚝 발을 절뚝거리며

어디를 꼭 가야 하는 방향도 없지
만

가다가 잔디밭에 누워서 쉬고

어쩌면 나를 기다릴 사람이 있을

것만 같은 곳,

어쩌면 무덤 같은 곳,

산천은 말이 없지만

저렇게 단풍 옷을 입고

누구를 기다리는가?

누구를 전송하는가?

이 세상에 고향 없는 사람
 이 세상에 형제 잃은 사람
 낙엽을 밟으며 바람 소리 들으며
 영원한 먼 길 떠나시라
 잠시 동안 이런 곳에 멈춰 섰다가
 어서 떠나가라고, 잊지 말라고
 그렇게 무정한 산천
 다시 더 말없는 산천
 그 산천을 나는 간다.

1964. 11. 7.

산골 아이

오늘 나는 십리길 재를 넘어 집집
 마다 유선방송 스피커가 떠들어대
 는 동네에 가정방문을 갔다가 한 아
 림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안고 왔다.

그들의 웃음은 꽃이 아니었다.
 그들의 웃음은 무지개가 아니었
 다.

별거벗은 산들의

텅 빈 울림이었다.
 허리 잘려 축 늘어진 땅의
 눈물 같은 것이었다.

“영희는 왜 안 오느냐?”

“가요, 가요(그 아이는요, 그 아이
 는요)

아랫마에 있는데요.

우리가 하도 뚜드려 패싸서

요샌 안 땡기요.”

날고구마를 손톱자국으로 까먹던

한 아이가 대답하니 모두 아하하
 하……

그 웃음소리는 꽃이 아니었다.

무지개도 아니었다.

갇혀 있는 죄인들의 흉내를 내는

그런 웃음이었다.

1965. 11. 12.

<우리말 동시>

어머님 생각

김리박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회원
《울 핏줄은 진달래》 시집에서.

사흘 사이 아들 셋을 물에 잃은
어머니
몇몇 해를 미친 사람 나간 마음
어디 가고

열 해에 겨우 찾은 열 서른넷이
온 살*

* 온 살 : 100살.

* 十年後の春、正氣に戻ったが百歳の老婆に

(10년 뒤 봄, 정신을 차렸지만 100살 할머니가 되었다).

처꽃

이 밤도 길 나그네는 믿고장* 안

아 울고

* 즈른 날 : 1000일. * 믿고장 : 고향.

하늘 아래

먼 곳이 하늘이면 이웃은 한울*이
요

밝음이 올날*이면 어둠은 오늘이
네

그러리 밀물 썰물이 죽살이*라 할
까나

* 한울 : 우주의 본체, 온 세상.

* 올날 : 내일. * 죽살이 : 인생.

부처꽃(彼岸花)

즈른 날*을 못 이겨 피는 날이 자
랑일까

여름이 왔을 때인지 하늘 헤는 부

물바람

해달*은 끊임없이 오갈 날 잊돋는
데*
어제는 스승 가고 오늘은 또래 가
고
남나라 눈칫밥이면 이런 일은 흔
한 일

* 해달 : 세월. * 잊돋는데 : 이어 돌는데.

첫 여름

메 푸르고 가람 맑고 하늘 낮고
땅 찌고
어느새 봄은 가고 첫 여름이 찾아
왔네
그러리 바쁘다 한들 쉬어간들 어
떠하나

간 봄(6)

어디까지 닿았는지 한숨 쉬고 있
을까
몸도 옷도 다 꽃이던 그 한때는
간데없고
어딘지 알 곳 없는 땅 더위만 가
득 차니

들여름

바위옷* 멋이니 장마가 오는구나
장마꽃* 갓 잠깨고 참아욱* 꿈결
이니
먼 곳에서 소리 지르는 하늘 울림
엿듣네

* 바위옷 : 이끼. 幽玄の青苔

* 장마꽃 : 일본 자양화(수국).

* 참아욱 : 무궁화.

<우리말 동시>

팽나무

권순채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회원
《풀꽃 나무들아》 시집에서.

우람한 등치
속은 텅 비어도
햇살이 유난히 빛나도다

파아란 하늘만치나
힘차게 피어나는 잎새마다
햇살이 눈부시다

조용히 매꾸어 가면서
섬세하게 극치를 이루며
오랜 세월만치나
아름다움을 지키네

팔대를 잡고
풀을 뽑지만
풀보다 팔대가
먼저 뽑힌다

뽑히지 않는
풀을 억지로 뽑지만
그래도 팔대가 먼저 뽑힌다
하다못해 호미로 메지만
다치는 것은 팔대이다

팔은 연하면서도 다구지다
빨간 팔알이 그래도 귀신 쫓는
으뜸 곡식이다

팔

팔밭에 풀을 뽑는다

나무

살아가는 사이 알게 모르게
세월은 흐르고 흘러가는데
무엇을 남기었는가

깨달음에 연을 있고
헛됨에 잃음이 있다
언젠가는 모습도 떠나며
이름도 희미하게 잊히고
정신도 점점 사라져
아쉬움 속에
세월은 흘러만 간다

수양버들

눈얼음 녹아내리는 물소리 들려
오면
버들개지 눈을 뜨는 언덕 아래
시냇물에 송사리떼 노닐고
달 밝은 봄밤 개구리 울음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면

비 젖은 강가에 수양버들이 더욱
푸르고

아낙의 손놀림에
봄기운이 완연하다

하늘거리는 바람에
수양버들 너울거림은
꽃 피는 봄날의 기운이다

벼

붉게 타는 놀빛에
산천이 물들면
물 길는 여인의 옷자락에
해가 저문다

한줄기 지나가는 소나기에
소떼가 몰려오면

푸른 들판에 벼가
곱게 곱게 드리우고

날아가는 새떼가
어스름 빛에 물들면
벼가 더욱 아름답게 익는다

해 저물 산마루
저녁별에
벼 빛이 빛난다

치자나무

뜨거운 햇살이 점점 식어가다
잠시 멈칫하는 사이
하늘이 파랗다 못해
단풍이 들고
떨어진 씨앗들이
봄을 기다려야 한다

지나온 시간만큼
땀물 바랜 향기를 내뿜는다

물빛에 비치는 산마냥
멀리서 기다리는

그대 마음보다
더 푸른 잎 속에
노오란 열매가
더욱 빛난다

단풍나무

그렇게도
빛나던 나뭇잎도
태풍에 비가 와서
빨리빨리 하다못해
빨갳게 물이 들고
말도 없이
자꾸자꾸
물들어가는 나뭇잎
산천을 불태우면서
떨구는 나뭇잎
땅을 덮고
봄에 새싹 돋는
약속을 하지요

<우리말 생각하기>

쉬운 말로 푸르게

숲노래 최중규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운영위원
《쉬운 말이 평화》를 썼다.

— 숨을 쉬듯 숲으로

‘수풀’을 줄여서 ‘숲’이라 합니다. 그러면 ‘수풀’은 무엇일까요? ‘숲’이라는 곳에는 나무가 한두 그루만 있지 않고, 풀이 몇 포기만 있지 않습니다. 풀도 나무도 우거진 곳이 숲입니다. 풀하고 꽃하고 나무가 가득 있기에 숲입니다. 사람이 가득한 곳을 이따금 ‘사람물결’이나 ‘사람바다’처럼 빗대곤 하는데, ‘사람숲’이라 일컫기도 합니다.

그릇에 밥을 많이 떠서 놓을 적에 ‘수북하다’고 합니다. 볼록하게 나오듯이, 위로 둥그스름하게 나오도록 많을 적에 ‘수북하다’고 하지요. 털이 수북하다고 얘기하고, 풀이 수북하다고 얘기합니다. 많기도 하고 흔

하기도 할 적에는 ‘수두룩하다’고 하지요. 어디에서나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만하다고 여기기에 ‘수수하다’고 합니다.

‘우산’은 한자말이고, 우리 옛말은 ‘슈름’입니다. 빨간 속살이 수북한 열매는 ‘수박’인데, 옛말은 ‘슈박’이에요. 언뜻 ‘수박’은 “물이 많은 박”으로 여기곤 하지만, 모든 열매는 ‘물살(물로 이룬 살)’입니다. 수박 뿐 아니라 배도 복숭아도 포도도 살구도 ‘물살’입니다. ‘슈름·슈박’처럼, 또 ‘수북하다·수수하다·수두룩하다’처럼, ‘슈·수’를 붙인 낱말은 “둥글 둥글 아주 넉넉하다”를 나타냅니다.

숨

우리는 ‘숨’을 ‘쉽’니다. 우리는 누

구나 ‘목숨’이 있어요. 숨을 쉬기에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마시는 숨은 ‘숨’에서 옵니다. 숲에 우거진 풀꽃나무가 내놓는 푸른 숨결을 기쁘게 들이쉬기에 숨빛을 이어요.

힘을 들이지 않아도 해낼 수 있기에 ‘수월하다’고 합니다. 일이나 말이 흔히 볼 만하다고 여길 적에도 ‘수월하다’고 합니다. 어렵거나 힘들지 않아서 ‘수월하다’일 텐데, 아주 쉬운 ‘쉽다’라는 낱말도 있어요.

마치 숨을 쉬듯이 할 만한 일인 ‘쉽다’입니다. 온누리를 푸르게 덮는 숲처럼 맑고 밝게 숨결을 살리기에 ‘수월하다. 쉽다’입니다. 수수할 만큼 수북하게 풀꽃나무가 우거진 숲을 담듯, 일이며 말을 즐겁게 하기에 ‘수월하다. 쉽다’라고도 가리킬 만합니다.

우리는 서로 어떻게 말을 하거나 섞는가요? 어렵구나 싶은 말을 내세우는가요? 서로 숲빛으로 만날 쉬운 말을 쓰는가요? 수수하게 펴는 이야기기를 ‘수다’로 누리세요? 말이 많아서 ‘수다’라고도 하지만, 수월하게

마음을 띄우는 말도 ‘수다’입니다. 쉬운 말로 푸르게 수련수련 서로를 품습니다.

수다

책 하나를 여럿이 둘러앉아서 나누는 자리라면 ‘책수다’입니다. 책수다를 영어로 옮기면 ‘북토크·북콘서트’쯤입니다. 이 얼거리를 헤아린다면, ‘노래수다’라든지 ‘마음수다·생각수다’를 펼 수 있습니다. ‘시골수다·서울수다·마을수다·나라수다’처럼 써도 어울립니다. 꼭 어렵게 ‘토론회·반성회·연구회·연수회’를 벌여야 하지 않습니다. ‘배움수다’에 ‘익힘수다’를 열 수 있습니다.

어디를 다녀올 적에는 ‘나들이’를 한다고 말합니다. 옆집을 다녀오건, 이웃나라를 구경하건 ‘나들이’인데, “나카다 + 들어오다”입니다. “나갔다가 들어오는 일”이라서 ‘나들이’예요. 한자말로는 ‘외출’입니다.

빠른길(고속도로)에는 ‘나들목’이 있습니다. “나가고 들어오는 길목”

이라는 뜻입니다. 빠른길에는 다르게 잇는 길목이 있으니, 이런 곳은 ‘이음목’이라 할 만합니다. ‘IC’는 ‘나들목’이요, ‘JC’는 ‘이음목’이에요. 큰고장에서는 전철을 갈아타는 곳이 있어요. 갈아타는 곳도 ‘이음목’입니다.

여러모로 헤아린다면, 나들이나 마실을 다녀온 이야기를 펼 적에 ‘나들수다·마실수다’를 열 만합니다. 제비가 노래하듯 수다를 퍼는 마당입니다. 크고 작은 못새가 노래를 베풀듯 우리 마음하고 생각을 넉넉히 주고받는 자리예요.

씨

심는 씨앗입니다. 심는 일이란 땅에 ‘심(힘)’을 놓아서 북돋우는 길입니다. ‘심’은 속에서 끌어올립니다. ‘심다’라는 몸짓은 속으로 나아가도록 힘을 들이는 길입니다. 이러한 ‘심’은 ‘붓심(연필심)’ 같은 데에서도 씁니다. ‘심’은 두고두고 길게 이으려는 몸짓인 터라, ‘실’이라는 낱말

하고도 잇닿아요.

우리말로 바라볼 줄 안다면, ‘심·실’을 알 수 있고, 한 걸음 나아가서 ‘심다·심부름’이 어떤 결이며 뜻인지 환하게 알아차릴 만합니다.

심는 씨인데, 마음에도 생각을 심으니 ‘마음씨’입니다. 어떻게 보이는지 매무새를 살피듯, 마음도 ‘마음새’를 살핍니다. 우리가 마시는 숨(바람)을 헤아리는 ‘숨결’처럼, 마음도 ‘마음결’을 헤아립니다. 이리하여, 말하고 글에서도 ‘말씨’랑 ‘글씨’가 있어요. 말이 어떻게 묻어나는지 살필 뿐 아니라, 말이 나아가는 곳을 헤아리는 ‘말씨’예요. 글로 남기는 ‘글씨’를 돌아보면서 이 글 한 자락이 어떻게 스미고 퍼지는가를 읽을 만합니다.

누구한테서

‘-한테(-에게)’하고 ‘-한테서(-에게서)’를 가려 쓰지 못하는 어른이 많더군요. 어린이는 더더구나 헛갈리겠지요.

누구한테서 받은 ↔ 누구한테 준
 어머니한테서 배운 ↔ 어머니한테 준
 동생한테서 들은 ↔ 동생한테 준
 너한테서 온 ↔ 너한테 준

바다에서 옵니다. 바다로 갑니다.
 바다에서 오듯, 바다한테서 얻거나
 받습니다. 하늘에서 옵니다. 하늘로
 갑니다. 하늘에서 오는 비처럼, 하늘
 한테서 빛을 얻거나 받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갈까요? 우
 리는 어디에 갈까요? ‘-서’를 언제
 붙이는지 스스로 생각해 봐요. “집
 에서 쓴다”고 합니다. “집에 간다”
 고 합니다. 비롯하거나 태어나거나
 일어나는 자리를 헤아리면서 ‘-서’
 를 붙여요.

우리말이 어렵다면 우리말을 생
 각하지 않았다는 뜻이요, 우리말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마음이요, 우리
 말을 살피지 않는다는 매무새입니
 다. 길을 슬기롭게 잡는다면 모두 수
 월하게 풀려요. 틀을 어질게 세운다

면 언제나 든든하고 아늑해요. 삶을
 사랑으로 다스린다면 누구나 즐겁
 고 포근하게 달랠니다.

우리말씨

‘우리말씨’란, 우리가 먼먼 옛날
 부터 우리 삶터에서 서로 사랑으로
 보금자리를 일구어 아이들을 낳고
 돌보는 동안 스스로 지은 말씨입니
 다. 이웃말씨란, 이웃나라 사람들이
 먼먼 옛적부터 이웃 삶터에서 이웃
 나름대로 사랑을 짓고 보금터를 가
 꾸어 아이들을 낳고 보살피는 사이
 에 이웃 나름대로 지은 말씨예요.

우리는 우리말에 우리말씨를 쓰
 기에 아름답고 넉넉합니다. 이웃은
 이웃말에 이웃말씨를 쓰기에 반갑
 고 푸짐합니다. 일본말씨는 일본사
 람이 쓸 일입니다. 이웃말(외국어)
 을 우리말로 옮길 적에는 옮김말씨
 (번역체)가 아닌 우리말씨를 살피서
 살릴 노릇입니다.

사랑으로 살림하면서 품은 우리
 말씨를 물려주기를 바라요. 사랑으

로 살아가면서 짓고 여민 살림살이를 아이들이 물려받기를 바라요. 들 숲바다를 푸르게 보듬고서 이어주기에 어진 사람인 어른입니다. 풀꽃 나무를 곱게 토닥이고서 이어받기에 착하고 참다이 빛나는 사람인 어른이입니다.

묘사 분류집

최영자, 최응구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회원
《묘사 분류집》에서.

제2장 몸

1. 체격

건강한 체격 :

◆ 나이는 비록 어리지만 몸이 단단하고 살팍지게 생긴 수길이는 끝끝내 뒤떨어지지 않고 어른들의 뒤를 따라왔다.

◆ 키는 작달막하나 몸집이 실팍하고 나이보다 훨씬 단단해 보였다.

◆ 그는 키가 크고 건장하며 성격이 침착하다.

◆ 건장하고 용감한 청년들

◆ 억대우(큰 소) 같은 사나이

◆ 쇠기둥같이 튼튼하게 생긴 몸

◆ 강철같이 튼튼한 사나이

◆ 뼈다귀가 굵직굵직한 장굴

◆ 대들보를 엮어도 휘어들지 않을 사람

◆ 몸이 작고 여위었으나 굳세게

생긴 몸

- ◆ 박달나무처럼 단단하고 미끈한 몸매
- ◆ 마치 땅 위로 굴러가며 뽀박질하는 고무공처럼 탄력 있어 보이는 몸매

약한 체격 :

- ◆ 가랑가랑한 몸매
- ◆ 남 보기에 거꾸러질 것 같은 사람
- ◆ 몸이 작은 사람
- ◆ 갱뽀한 몸매
- ◆ 말려놓은 무쪽같이 시들시들한 몸
- ◆ 가랑잎처럼 마른 몸
- ◆ 장다리무처럼 배리배리한 처녀

- ◆ 갑작하고 여윈 몸
- ◆ 겨릅대같이 바싹 여윈 몸
- ◆ 명태같이 바싹 마른 사나이
- ◆ 꼬장꼬장(꼬싱꼬싱) 마른 명태 같은 몸

키 큰 체격 :

◆ 거방진 사나이

◆ 어깨가 꺾 벌어지고 키가 후리후리한 그 청년은 사람들에게 바위처럼 믿음직한 느낌을 주었다.

- ◆ 바싹 말라 작대기 같은 꺾다리
- ◆ 황새 늑새끼처럼 멀쑥한 키
- ◆ 우물드레 장대기만큼이나 큰

키

- ◆ 바지랑대같이 경충한 키다리
- ◆ 허우대가 유달리 큰 사나이
- ◆ 체구가 현철하다.
- ◆ 몸집이 우람지게 생겼다.
- ◆ 체구가 장대하고 이목이 번듯하다.
- ◆ 몸집이 큰 몸집을 뒤뚱거리다.
- ◆ 속이 안 든 배추통같이 험렁하고 긴 장대같이 큰 사나이

키 작은 체격 :

◆ 자그마한 키에 몸이 다부지고 얼굴이 복스럽게 생긴 사람

◆ 몸집은 똥똥한 편이지만 키가 작달막한 금석은 밤에 보면 용결이 또래의 소년과 다르지 않았다.

◆ 그는 키가 작고 몸도 가는 편

이다.

◆ 그의 키는 작달막하나 노동으로 단련되어 강철같이 탄탄한 몸이었다.

- ◆ 바투 생긴 키
- ◆ 똥똥하고 다발은 키
- ◆ 양비튼한 몸뚱이
- ◆ 몸이 생쥐처럼 조그맣다.
- ◆ 정강이가 짧고 배가 큰 젊은이
- ◆ 난쟁이 키에 배는 똥똥하고 아래턱은 어찌나 짧은지 입과 목이 거의 한데 맞붙은 것 같다.

◆ 그가 ‘땅딸보’란 별명을 듣는 것은 키가 작고 딱 바라졌기 때문이다.

◆ 키가 땅딸막하고 다부진 사나이

◆ 키가 작달막한 대신 아래 윗도리가 알맞게 체가 맞고 마치 암고양이같이 뗏물이 쑥 빠졌다.

날씬한 체격 :

- ◆ 그는 날씬한 키에 눈망울이 시원스레 컸다.
- ◆ 물찬 제비처럼 회매하다.

- ◆ 회초리 같은 몸매
- ◆ 호리호리한 균형이 잘 잡힌 몸
- ◆ 매끈하게 쪽 빠진 몸매
- ◆ 능수버들처럼 나긋나긋한 자세

- ◆ 은근하면서도 날씬한 몸매
- ◆ 한 송이 연꽃처럼 하느적거리는 여인

◆ 금방 떠다 심어놓은 화초같이 가냘팠 보이는 몸매

◆ 키가 날씬하고 얼굴이 가름하다.

미끈한 체격 :

- ◆ 능름하고 씩씩한 청년
- ◆ 외양은 멀끔하게 생긴 사람이 왜 그런 점잖지 않은 짓을 한단 말이지요?

- ◆ 후리후리한 균형이 잡힌 몸매
- ◆ 균형이 잘 잡힌 늘씬한 몸매
- ◆ 그는 얼굴이 말쑥하고 몸이 미끈하게 생겼다.

◆ 그의 몸집은 그다지 실한 편은 아니나 균형이 잘 잡힌 탐탁한 체구였다.

◆ 콩나물처럼 물기 번지르르하고
참대처럼 속이 텅 빈 녀석

똥똥한 체격 :

◆ 그는 돼지같이 똥똥하고 구레
나룻까지 험상스럽게 난 놈이다.

◆ 키가 작고 똥똥한 사람이 눈
위를 굴러가고 있다.

◆ 둔중한 몸집

◆ 비대한 몸집

◆ 가로 퍼진 몸집

◆ 떡판처럼 드레진 몸집

◆ 유들유들한 몸

◆ 부들부들 살찐 몸

◆ 오동통하고 맵시 있는 몸매

◆ 고무공처럼 팽팽한 몸매

◆ 곰같이 우둔한 몸매

◆ 동탕한 몸매

◆ 대사 때 통째로 튀어 놓은 암
돼지 같은 마넨

◆ 처녀의 동탕한 자태

◆ 절구통같이 똥똥한 사람

목의 여러 부위 이름 :

고개(목고개) — 목의 뒷등이 되
는 부분

목 — 목의 앞쪽

목살(목다시) — 목의 앞쪽 부분
살 또는 앞쪽 부분

목젖 — 입의 안쪽 뒤 끝에 아래
로 드린 둥그스름한 살

목덜미 — 목의 뒤쪽 부분

목줄(목줄띠) — 목구멍의 힘줄

목안 — 목구멍의 안

울대뼈 — 앞목에 두드러져 나온
뼈

목구멍 — 입속의 목 안으로 통하
는 곳

목과 관련된 말 :

목깃(목달개) · 목도리 · 목수건 ·
목청 · 목운동 · 목소리

목걸이 — 주로 여자들의 목에 치
레로 거는 사치품의 한 가지

목거울 — 목 안이나 울대를 들여
다보게 긴 자루 끝에 작은 거울을
단, 의료 기구의 한 가지

2. 목

목놀림 — 겨우 목구멍이나 놀릴 만한 정도로 적게 먹이는 것

목 놓아 울다 — 목소리를 크게 내어 울다.

목다심 — 물을 좀 마시거나 가벼운 기침을 하거나 하여 거친 목구멍을 고르게 하는 것

목탈 — ‘목에 생기는 병’을 두루 이르는 말

목을 따다(목을 떼다) — 일정한 직위나 직무에서 떼어 버린다.

목을 자르다 — 일정한 직위에서 떼어 버린다.

목에 대한 표현 :

- ◆ 미끈한 목
- ◆ 쪽 빠진 목
- ◆ 황새 같은 목
- ◆ 왜가리 같은 목
- ◆ 양바탕한 목
- ◆ 군살이 진 목덜미
- ◆ 죽지를 잡힌 닭새끼처럼 어깨 사이로 한 발이나 늘어뜨린 모가지
- ◆ 몸은 뻘뻘 마르고 거위영장처럼 모가지만 길게 나왔다.

◆ 비에 함뱍 젖은 그는 목이 영성하게 길어진 것이 더 초췌해 보인다.

◆ 어찌나 목이 났는지 목이 아예 어깨에 묻혀버렸다.

◆ 목이 밟아서 갑갑한지 씹씩거린다.

◆ 굵은 목에 지렁이 같은 핏대가 올라있다.

◆ 보초는 금시에 자라목이 되어서 비명을 지르더니 벼랑진 언덕 아래로 뒹굴어 떨어졌다.

◆ 목구멍에서 것불내가 났다.

목과 관련된 성구 속담 :

●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 =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이 먼저 그 일을 서두른다는 뜻

● 목멘 개 겨 탐하듯 = 더는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서 욕심에서 그 이상의 일을 넘어다봄을 이르는 말

● 목 자른 강아지 것섬 넘어다보듯 = 키 작은 사람이 사람들 틈에 끼어 앞의 광경을 넘어다보는 모양을 이르는 말

● 목이 간들거리다(모가지가 간들간들하다) = 죽을 위험에 직면하다, 또는 직위에서 거의 떨어지게 된다.

● 목이 붙어 있다(모가지가 붙어 있다) = 살아남아 있다, 또는 직위에 간신히 머물러 있다.

● 목이 잠기다 = 목이 쉬어서 목 소리가 잘 나오지 않게 되다. <목이 잠긴 걸 보니 감기에 단단히 걸렸군.>

● 송편으로 목을 딸 일 = 어처구니없이 매우 억울한 일이라는 뜻

3. 어깨

어깨의 몇몇 부위 이름 :

어깨부들기 — 어깨의 뿌리, 또는 그 언저리

어깨죽지 — 어깨에 팔이 붙은 부분

어깨뼈 — 어깨를 이루는 뼈

어깨박죽 — 어깨부들기가 있는 넓적한 부분

어깨관(어깨곽) — 어깨의 넓적한 부분

어깨와 관련된 말 :

어깨걸이 · 어깨너비 · 어깨를 걷다 · 어깨동무 · 어깨바람(신바람) · 어깨짐 · 어깨짓 · 어깨차례(키순) · 어깨총 · 어깨높이 · 어깨받침대 · 어깨저울 · 어깨채 · 어깨폭

어깨넘어글 — 남이 배우는 옆에서 얻어들어 배운 글 <아버지는 어려서 글방에도 못 가고 일하면서 어깨넘어글로 겨우 국문을 배웠다.> <동리 서당에서 어깨넘어글을 배운 아들이 장원을 했을 때, 어머니는 기뻐 울면서 바느질을 하였고 아들과 함께 국문을 깨쳤다.>

어깨바대 — 적삼의 어깨에 속으로 덧댄 조각

어깨선 — 양복저고리의 앞쪽과 뒤쪽이 어깨 부분에서 어울리는 선

어깨성 — 어깨와 어깨를 잇대어 성처럼 둘러싼 것

어깨숨 — 어깨를 들먹거리면서 가쁘게 쉬는 숨

어깨춤 — 어깨를 으쓱거리며 추는 춤 <노들강변 노래를 부를 때마다 어깨춤이 절로 난다.>

어깨끈 — 치마나 바지 같은 것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어깨에 걸치게 된 끈

어깨띠 — 한쪽 어깨를 걸쳐 다른 쪽 옆구리에 두 끝이 어기매이게 된 띠. 흔히 일정한 구호나 소속 단체 이름 같은 것을 쓴다.

어깨울음 —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울음

어깨에 대한 표현 :

- ◆ 피진 어깨
- ◆ 짝 버그러진 어깨
- ◆ 좀 처진 듯한 넓은 어깨
- ◆ 좁은 어깨
- ◆ 동실한 어깨
- ◆ 동그란 어깨
- ◆ 실곽한 어깨
- ◆ 영성하니 여윈 어깨
- ◆ 다듬잇돌 같은 어깨
- ◆ 듬직한 어깨
- ◆ 맵시 있는 어깨

◆ 부드러운 어깨

◆ 옷이 팽팽하게 켜기도록 짝 벌어진 어깨

◆ 고무공마냥 근육이 부풀어 오른 동그스름한 어깨

어깨와 관련된 성구 속담 :

● 한 어깨에 두 지게 질까 = 한 사람이 한꺼번에 두 가지 일을 할 수 없다는 뜻

● 어깨가 가볍다 = 책임이나 임무를 다하거나 덜어 마음이 가볍다. <너희들이 살림을 맡아준다면 이제 어머니는 안심하고 어깨가 가볍게 살 수 있다.>

● 어깨가 무겁다 = ‘책임이나 임무가 무겁다’를 비겨 이르는 말

● 어깨를 겨누다 = 어떤 일에서 서로 경쟁하다.

● 어깨를 낮추다 = 겸손한 태도로 자기를 낮추다. <어깨를 낮추고 배우다.>

4. 가슴

가슴의 여러 부위 이름 :

젖 · 젖가슴 · 젖통(젖두덩) · 젖꼭지 · 가슴통 · 가슴뼈 · 가슴통뼈

젖부리 — 젖꼭지의 뾰족한 부분

젖몸 — 젖꼭지를 중심으로 한 둘레의 부분

젖부들기 — 젖몸이나 젖살

젖줄(젖줄기) — 젖통 속에 있는

젖이 나오는 줄기

젖털 — 남자의 젖꽃판가에 난 털

젖꽃판 — 젖꼭지의 둘레로 동그랗게 가무스름한 부분

양가슴 — 두 젖 사이의 가운데 부분

동가슴 — 앞가슴의 가운데 부분

명치 — 가슴 한가운데의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

명치끝 — 명치뼈의 아래 끝

명치뼈 — 명치에 있는 뼈

가슴놀이 — 가슴의 맥박이 뛰는 부분

가슴곽 — 가슴의 바닥이나 복판

여러 가슴과 젖의 이름 :

앞가슴 · 뒷가슴 · 털가슴 · 대접

젖 · 공기젖 · 사발젖 · 병젖

구유젖 — 여자의 젖꼭지가 보통 사람과는 달리 오목하게 들어간 젖

연적젖 — 올라붙은, 연적같이 납작한 작은 젖

새가슴 — 앞가슴이 새처럼 볼록하게 나온 가슴

가슴과 관련된 말 :

가슴둘레 · 가슴헤엄 · 가슴얇이 · 가슴운동 · 젖명울 · 젖몸살 · 젖몸얇이 · 젖배 · 젖살 · 젖얇이(젖탈) · 젖떼기 · 젖어머니(젖엄마) · 젖이 · 젖동냥

젖벨 — ‘몹시 심한 부아’를 이르는 말 <만호의 엉뚱한 태도에 대하여 상호는 세 살 때의 젖벨까지 콧치밀어 오르는 분을 가까스로 참고 그를 타일러 주었다.>

젖마(유마) — 임금의 젖어머니

가슴받이 — 아래 바지와 맴꾼 사이의 앞가슴 부분을 가려 덮은 천, 또는 그런 것이 달린 바지

가슴띠 — 여성들이 양복 차림을

할 때 가슴 모양을 곱게 하기 위하여 하는 때

냉가슴(냉가슴앓이) — 몸을 차게 하여 생기는 가슴앓이

생가슴 — 공연한 걱정으로 썩히는 마음속

윗가슴 — 윗옷의 가슴에 닿는 부분

가슴에 대한 표현 :

◆ 대방의 광풍도 한 몸으로 막아설 듯한 짝 벌어진 가슴

◆ 울퉁불퉁 빠져나온 앞가슴의 근육

◆ 황포강의 물결처럼 출렁이는 가슴

◆ 하늘에 등실 떠가는 구름처럼 부풀어오는 가슴

◆ 성긴 털이 부송부송한 앞가슴

◆ 시커먼 털이 거무스름한 앞가슴

◆ 갈빗대가 아롱아롱하도록 말라든 앙상한 가슴

◆ 퍼진 가슴

◆ 딱 바라진 앞가슴

◆ 평퍼짐한 가슴

◆ 바위 같은 가슴

◆ 군살이 진 가슴

◆ 벽돌담같이 검붉은 가슴

◆ 밭고랑같이 앙상한 가슴

◆ 늪같이 앙상한 가슴

◆ 바닷물처럼 뒤설레는 가슴

◆ 구들장 같은 가슴

◆ 한껏 부푸는 가슴

◆ 젊음에 찬 가슴

◆ 활랑거리는 가슴

◆ 두근거리는 가슴

◆ 후들후들 뛰는 가슴

◆ 풀무처럼 풀떡거리는 가슴

◆ 들볶던 가슴

◆ 불붙는 가슴

◆ 담담한 가슴

◆ 텅 빈 동굴 같은 가슴

◆ 가슴이 빠근하였다.

◆ 가슴이 곧 터지는 것 같았다.

◆ 가슴이 파도처럼 들먹거렸다.

◆ 울렁거리는 가슴을 녹갸었다.

◆ 남몰래 가슴이 들떠다.

◆ 가슴이 방망이질하듯 뛰었다.

◆ 가슴이 따끔 맞혀 왔다.

- ◆ 새삼스레 가슴이 후터워졌다.
- ◆ 가슴이 잔뜩 부풀었다.
- ◆ 가슴이 덜덜 떨리었다.
- ◆ 가슴이 답답하고 쓰리다.
- ◆ 세찬 반발이 가슴 한복판에서 터져 나왔다.
- ◆ 가슴은 마치 불덩어리를 삼킨 듯 뜨거웠다.
- ◆ 마치 소나무 장작을 지핀 아궁이와도 같이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활활 타올랐다.
- ◆ 억울한 생각과 통분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부질부질 끊었다.
- ◆ 봉긋한 젓가슴
- ◆ 풍만한 젓가슴
- ◆ 도독한 젓가슴
- ◆ 불룩 솟은 젓가슴
- ◆ 불룩하고 탐스러운 젓가슴
- ◆ 작 달라붙은 젓가슴
- ◆ 몽글몽글(몽글몽글)한 젓가슴
- ◆ 너울거리며 춤을 추는 젓가슴
- ◆ 통통 불은 젓가슴
- ◆ 가슴이 몽클하였다.
- ◆ 가슴은 복을 두드려대듯 쿵쿵 뛰었다.

◆ 나는 아무 소리 없이 울먹이는 가슴을 부둥켜안고 밖으로 나왔다.

◆ 쓰라린 가슴에서 일어난 불길

가슴과 관련된 성구 속담 :

● 가슴을 짓찡다 = 마음이 심한 고통을 받다.

● 가슴을 헤쳐 놓다(흉금을 털어 놓다) = 가슴속의 심정을 스스로 없이 다 이야기하다.

● 가슴을 앓다 = (분개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시새우거나 할 때,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안달아 마음의 고통을 느끼다. <그는 경쟁에서 동무에게 일등을 빼앗긴 데 대하여 두고두고 가슴을 앓았다.>

● 가슴을 에이다 = (마음으로) 몹시 고통을 받는 것을 이르는 말

● 가슴이 내려앉았다 = (불안한 말을 듣거나 위태로운 것을 보고) 몹시 놀라거나 한동안 맥이 풀리다.

● 가슴이 미어지다 = 가슴이 터지는 듯한 심한 슬픔이나 고통을 느끼다. <그런 생각을 하니 비록 지난 간 고생이었으나 자식들이 가엾어

서 새삼스레 가슴이 미어지는 듯하였다.>

● 가슴이 섣뜩하다 = 갑자기 놀라서 몹시 무서운 느낌이 심하다. <어두운 길을 빨리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웬 사람이 서라고 고함치는 바람에 가슴이 섣뜩하여 그 사람을 돌아보았다.>

● 가슴이 솟등걸이 되다 = 속이 몹시 타다.

● 가슴이 뜨끈하다 = (어떤 자극으로) 갑자기 마음에 몹시 찢리다.

● 가슴이 뿌듯하다 = 매우 만족한 느낌을 가져 흐뭇하다.

● 가슴이 찢리다 = 몹시 가책을 받다.

● 가슴이 아프다 = 마음이 몹시 쓰라리다.

● 솟뭉치로 가슴을 칠 일이다(송편으로 목을 딸 일) = 어처구니없이 매우 억울한 일이라는 뜻

5. 등

등의 여러 부위 이름 :

등가죽 · 등덜미 · 등바닥 · 등살 · 등줄기 · 등판 · 등뼈(등골뼈) · 등허리 · 잔등(뒤잔등)

등골 — 등 한가운데로 길게 고랑이 진 곳

등골뼈 — 등마루를 이룬 뼈

등마루 — 등골뼈가 있는 두두룩한 자리

등가슴 — 가슴의 등쪽 부분

등과 관련된 말 :

등받이 · 등짐 · 등짐장수 · 등혜엄 · 등꼬부리 · 등뒤

등거리 — 소매가 없이 된 윗옷의 한 가지. 땀받이로 속에 입는 것과 추위막이로 겉에 입는 것이 있다. <더운 날씨여서 그는 쇠코잠방이 위에 등거리만 걸치고 앉아 있었다.>

등굣길 — 등을 굽는데 쓰는 기구

등등거리 — 등나무의 덩굴로 걸어 만든 등거리. 여름날 속옷에 땀이 배지 않게 하느라고 입는다.

등술(등술기) — 옷의 등쪽 복판에 있는, 두 폭을 맞붙여 꿰맨 술기

등어리 — ‘등’을 달리 이르는 말

등에 대한 표현 :

- ◆ 동그스름한 등
- ◆ 다듬잇돌 같은 잔등
- ◆ 바위 같은 잔등
- ◆ 떡판처럼 편편한 등어리
- ◆ 까마반지르한 등어리
- ◆ 새우등이 진 할머니가 지팡이

를 짚고 건넛마을로 건너가신다.

◆ 몸이 수척하고 등이 구부정한 그가 휘몰아치는 눈보라를 뚫으며 걸어갔다.

◆ 등이 꼬부라진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걸어간다.

◆ 등이 꼬부정한 할머니

등과 관련된 성구 속담 :

● 등 시린 절 = 남에게 베푼 것이 변변치 못한데도 그의 값음이 너무나 후하여 뗏뗏하지 못하고 미안할 때 이르는 말

● 등쳐먹다 = 악독하고 교활한 짓으로 남의 재물을 갈아먹다.

● 등치고 간 내먹는다 = 겉으로

남을 위하는체하면서 속으로는 남을 해치고 자기의 잇속을 채운다.

● 등치고 배 만지다 = 남에게 해를 끼쳐놓고 교활하게 어루만지며 달래는체하다. <그가 무엇 때문에 당신에게 그런 달콤한 소리를 하는 줄 아오? 그제 다 등치고 배 만지는 수작인데 정신을 똑똑히 차려야 하오.>

● 등을 대다(등을 업다) = 남의 세력에 의지하다. <마름집에서는 김지주에게 등을 대고 소작인들을 여간만 못살게 구는 것이 아니었다.>

● 등을 맞대다 = 정반대의 태도를 보인다.

● 등이 달다 = 뜻대로 되지 않아 몹시 안타까워지다. <어머니는 그 혼처를 놓칠까 봐 등이 달았다.>

● 등이 터지다 = 파탄이 되거나 죽을 정도가 되다. <포목장수 권가는 등 터지는 줄도 모르고 물욕에 눈이 어두워 날뛰었다.>

*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

자유 도시만이 사람의 희망이다

羽仁五郎(하니 고로오) 일본 역사가이자 평론가
《네 마음이 전쟁을 부른다》 책에서.

미국의 시민권을 얻은 이야기

미국에는 타국에서 와서 미국 시민권·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매우 많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시험을 치러야 하고 시험에서는 세 가지 질문을 받는다.

첫째, “미국 대통령의 이름은 무엇인가”이다.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역시 자기가 사는 나라의 대통령 이름도 모르면 시민으로서 정치에 관심이 너무 없는 것이어서 시민의 자격이 없다는 뜻일 것이다.

둘째, “미국 의회는 어디에 있습니까”이다. 시민은 누구나 발언권이 있다. 그 시민의 발언을 대표하는 곳이 의회(국회)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할 때 자기의 대의원이 어디서 발언을 해 주는지도 몰라서는 역

시 시민의 자격이 없겠지.

셋째는 매우 특색 있는 질문인데 “당신은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이다. 미국 시민은 누구나 대통령에 입후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미국은 공화제라는 것이다.

그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을 무렵 이탈리아에서 이주해 온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앞에 말한 두 가지의 질문은 맞게 대답을 했다. 그런데 세 번째 질문에 “아니 그건 곤란해요. 나는 아이스크림 장사꾼인데 요즘은 여름철이라 바빠서 대통령이 될 시간이 없어요” 하고 대답했다. 그러니까 시험관은 “그렇다면 당신은 미국의 시민권을 받을 수 없어요”라고 했다는 우스개 이야기가 있다.

이같은 이야기가 생기게 된 까닭

은 미국이 공화제 정치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미국은 공화제이기 때문에 국민은 누구나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누구나 천황이 될 수는 없다. 이런 것을 군주제라고 한다. 이 문제는 도시의 자유 자치 문제를 생각할 때 매우 큰 참고가 되는 문제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범죄는 ‘중앙집권’

미국과 일본의 청소년 여론조사에서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전차 안에서 횡포를 부리는 사람이 있을 때 이를 “제지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질문에 미국 청년은 “제지하겠다”고 하는데 일본 청년은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일본에서는 남의 일에 끼어들어 난처해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최근에는 미국도 달라져 전차 속

의 난동을 아무도 제지하지 않는 것을 주제로 하는 영화가 상영되기도 했다. 공화제인 미국에서도 사람들은 서로 대등하고 평등하다는 생각이 점점 사라져간다는 증거이겠다.

사람 정신이 퇴폐해 있다는 보기는 최근 미국에서 마약이 극심한 것, 일본에서는 폭력단이 밀매하는 각성제가 그것이다. 아무튼 선진 자본주의 국가는 어디에서나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미국은 월남전 때부터 더욱 심해졌고 러시아도 아프가니스탄에 출동한 병사들이 마약에 빠져 있기도 하다.

이런 문제를 고찰할 경우에 암흑속으로 검둥소를 끌고 가는 식이 되지 않기 위해 확실히 구별 지어아할 세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공화제와 군주제의 문제다. 둘째는 독점자본의 문제이고, 셋째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문제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문제에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중앙집권’의 문제다.

현재 세계 모든 국가에서 중앙집

권이 심히 강대해져서 이 때문에 우리 개개인의 마음이 조금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 중앙의 권력이 너무나 강대하기 때문에 우리 개인이 본래 지녔던 상상력마저도 자신 주변 일 말고는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 이것은 또 “나 혼자 아무리 해봤자”와 같은 한 가지 숙명론의 원인도 된다. 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가? 관리라든가 억압이 현대 사회에 큰 문제라고 말했으나 그 근본 원인은 지배체제의 ‘중앙집권’에 있다.

도시에는 군대 대신에 자유가 있다

이 중앙집권에 대항하는 것으로서 도시자치체(都市自治體)를 생각할 수 있다. 국가에 군대가 없는 곳은 거의 없다. 그러나 도시에는 군대가 없다. 그리스의 도시 ‘산토리니’에서는 무기가 발굴되지 않았다. 도시에는 군대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 가장 좋은 보기는 영국인데 런던 같

은 데서는 군대가 무장하고 단체 행동을 하는 일이 용인되지 않는다. 일본에서는 명치시대부터 군대가 동경 시내를 예사로 무장하고 행진했다. 말하자면 동경은 도시가 아니기 때문이다. 동경은 국가의 일부이기 때문에 군대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와 달리 런던은 국가의 일부가 아니고 자유 도시이다.

그래서 현재도 그러리라 생각하지만 영국의 국왕은 런던 시장의 허가 없이 런던 시내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나 다른 나라는 국왕이 처음부터 수도 한복판에 있다. 허가를 받고 안 받고도 없다. 이런 점이 우리들 마음속의 움직임과 깊은 관계가 있다.

자본주의 국가도 사회주의 국가도 다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들 마음속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중앙집권의 강화로 말미암아 개인의 마음속 자유가 빼앗겼다는 사실이다. 이를 해결하는 데는 도시자치체가 열쇠이다. 이 점을 나는 전부터 꾸준히 주장해 오고 있다.

현재 도시자치체를 중심으로 살면서 우리들 마음이 자유를 회복한다는 것은 거의 절망스럽다고 생각될는지 모른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일본에서 사회주의의 주장이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명치시대였다. 우선 도시의 사회주의로 나타났다. 사회주의는 군대나 전쟁에 반대한다는 것을 국가에게 주장한다. 그러나 그런 주장을 하면 바로 탄압을 받는다. 국가에 대놓고 사회주의의 주장을 하면 가혹한 탄압을 받을 위험이 있다. 그래서 우선 도시에서 사회주의를 실천하자는 생각이 고안되었다. 도시에는 군대가 없으며, 전쟁도 없다. 도시에서 사회주의를 주장하면, 군국주의 반대라는 까닭으로 탄압될 염려도 없다. 이런 식의 도시 사회주의라는 형태로 명치시대에 사회주의가 나타났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차이를 알고 있는가

중앙집권 국가는 군대를 갖기 마련인데 군대를 갖기 이전에 관료주의가 먼저 생기게 된다. 그러나 도시자치체에서는 대체로 관료주의가 생겨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도시자치체의 시청이나 동사무소 사무는 원래 여러 직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이 교대로 봉사하기 때문이다. 이런 기구에서 관료체제는 생겨나지 않음이 원칙이다. 오늘날에도 이같은 자치 조직을 만들고 싶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현재 지방공무원이라는 것은 중앙집권의 영향을 받아 제도로는 국가공무원과 같은 것으로 보이나 본질이 다른 것이다.

국가공무원보다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너무 좋다는 것이 언제나 문제로 보이고 신문에도 보도되는데, 지방공무원 보수가 높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국가공무원의 직무는 대부분 책상 위에서 하는 것뿐이나 지방공무원이 해야 할 일은 현장의 일이 대부분이다. 하수도, 학교, 교육과 같은 현장의 일이다. 이

런 일은 원래 자치체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국가 중앙집권의 경우 그 국가공무원은 현장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관리만 한다.

예컨대 몸이 불편한 사람이 국가 공무원으로 취직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지방공무원이라면 현장의 일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얼마 전에 기후시(岐阜市) 직원으로 심신장애자 한 사람이 취직을 했는데 그는 화초 가꾸기를 잘 하기 때문에 시 공원과에 취직할 수가 있었다.

재판도 국가가 관계하면 흑독해진다

도시자치제도가 가장 발달한 곳은 유럽으로 독일의 문예부흥시대다. 그 시대에는 재판도 도시재판소에서 했다. 그러나 일본에는 아직도 도시재판소가 없다. 동경 지방재판소라는 명칭만 보아도 동경은 재판 측면에서 보면 지방이다. 국가에서

볼 때는 동경도 지방이라는 뜻이다. 이것만 봐도 일본이 얼마나 중앙집권이 극심하며 도시자치체의 자치 사고가 부족한가를 알 수 있다. 독일의 도시재판소에서는 재판관도 선거로써 선출하며 그 재판관도 평소에는 고깃집이나 그밖에 자기 직업에 종사했다. 재판관뿐만 아니라 검찰관도 마찬가지였다. 핀란드의 ‘칼레발라 신화’에 나오는 신 이야기와 같다. 이 신화 속 신은 평소에 목수 따위의 직업을 가졌다.

중앙집권 아래에서 재판이 되고 보면 날마다 재판할 일이 생기지만 자치체에서는 그렇지 않다. 자치 정신이 농후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시민들 스스로 해결해 버린다. 그래서 재판관도 일반 시민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자유직업에 종사할 수가 있다. 그러다가 사건이 일어나면 법복을 입고 재판관석에 앉는다. 독일 문예부흥기는 그런 재판제도였다.

이랬던 독일이 독일제국으로 통일되었을 때에는 대학에서 육법전서(六法全書)를 암송해 사법시험에

합격해 가지고 재판관 또는 검찰관이 되는 제도가 생기게 되었다. 마치 오늘날 일본의 재판관처럼 육법전서는 잘 알고 있지만 세상 일, 시민 생활, 사람들의 마음은 아무것도 모르는 재판관이 생겨나게 되었다.

빅토르 위고의 유명한 소설 ‘레미제라블’에는 국가 재판관이 얼마나 가혹한 재판을 하는가를 말하고 있다. 장발장이라는 주인공이 죽은 형의 가족을 돌봐주어야 하는데 실직자가 많았던 때라 직업도 없었다. 그래서 보다 못해 눈앞에 있는 가게의 빵에 팔을 뻗쳐 집으려다가 창문 유리가 깨지고 말았다. 그는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사실은 배가 고플 아이들에게 빵을 먹이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육법전서를 문구대로만 암기하고 있는 재판관이 볼 때는 유리를 깨뜨린 것은 기물파괴가 되고, 빵을 훔친 것은 강도가 되며, 뒤쫓아 오는 경찰을 밀어젖히고 도주한 것은 공무집행방해가 된다. 현재 일본에서 하는 재판도 이와 똑같은 것이다. 사

회의 부정을 재판하고 사람의 기본 인권을 지키기 위해 있어야 할 재판소가 이런 실정이다.

이런 일은 모두 국가 중앙집권에 그 원인이 있다. 이에 대해 도시자치체를 형성하는 길 말고는 대항할 길이 없다. 국가 중앙집권을 현재대로 놓아두고서는 자본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나 똑같이 개인의 마음속 자유는 완전히 잃어버릴 것이다. 우리들 개개인의 자유로운 욕구는 독점자본이나 스탈린주의 같은 손에 걸리면 자유가 ‘주의’로 되어 버리거나 아니면 ‘강령’이 되어버린다. 더구나 일본에서는 중앙집권이 독점자본과 긴밀히 유착되어 더욱더 지독한 양상을 띠게 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모여들어 도시자치체를 만들어 나가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 우리들의 유일한 희망은 거기에 있을 따름이다.

지방 시대의 뜻

시나가와현(神奈縣) 나가스 히도미(長洲一二) 지사(知事) 같은 사람들이 “지금 지방 시대가 오고 있다” 하는 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저 단순히 지방이라고 말해보야 아무런 뜻이 없다. 그들이 말하는 지방은 중앙에 대한 지방이기 때문에 ‘자치’라는 개념과는 아주 무관하다. 진정한 뜻의 지방 시대가 되려면 도시 자치체를 중심으로 우리 개개인의 마음속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라야 한다. ‘자치’란 중앙 권력과 협의한다든지 하는 것과는 다르다. 어디까지나 자기들끼리 해 나간다는 뜻이다. 이런 자치는, 예컨대 대학의 자치라는 요구가 되고 그것이 학생 투쟁이 되거나 산리스카(三里塚) 농민 투쟁이 되거나 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자유란 자기 일은 자기가 결정짓는다는 것이다. 농민은 토지에 대한 자신의 의지가 있다. 그리고 학생은 자기가 배우는 대학이나 학문에 대해 자신의 의지가 있다. “지금의 학

생에게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학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어릴 때부터 박탈당해왔기 때문이다. 농민 또는 학생의 자유로운 뜻을 무시하고 중앙의 권력이 멋대로 공항을 만들거나 학문의 터전을 권력 마음대로 관리하거나 한다. 이에 대해 어디까지나 ‘자치’로써 저항해 나가는 이외의 방법은 없을 것이다. 현재 이같은 자치의 움직임은 국제로도 활발해지고 있다. 개개인의 약한 반발이 아니고 국제 연대로 반발하는 데까지 와 있다.

3할 자치를 4할 5할로……

모든 악의 근원은 국가 중앙집권에 있다. 이는 자본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나 마찬가지다. 중앙집권으로 정치를 하면 러시아에서도 스탈린주의를 해결할 길이 없다. 미국도 베트남 전쟁 같은 것을 두 번 다

시 안 하겠다는 말은 하고 있으나 실제로 같은 짓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역시 중앙집권 체제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도시자치체가 아니고 지방자치체를 부르짖는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 거기에는 자치체는 소위 3할 자치가, 자유로이 할 수 있는 재원은 3할뿐이다. 7월에 대해서는 국가가 간섭한다. 우리는 이 3할을 4할, 5할로 늘려나 가야 한다. 이같은 자치체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아니면 전쟁을 막을 길은 없고 독점자본에서 자유를 지킬 방법도 없다.

자치체의 공적으로는 예전 동경지사인 미노베(美濃部)가 매우 많은 업적을 남겼다. 지금은 동경 스미다가와(隅田川) 강에서 낚시질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미노베 이전에는 스미다가와 강물은 썩어 냄새가 코를 찌러 그 근처에 가지를 못했다. 또 동경에는 조선대학(朝鮮大學)이 있었는데 전에는 문부성(文部省)이 학교로 인정을 해주지 않았다. 거기에

학생이 있고,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곳이라면 그것은 엄연한 학교이다. 정부가 인정한다고 학교이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학교가 아닐 수는 없다. 중앙집권스러운 사고방식이 아니고 도시자치체의 논리로 말하면 학교를 인가하느냐 안 하느냐는 시민 전체가 스스로 해결할 문제다. 그래서 미노베는 조선대학을 인정했다.

최근에는 나가사키시(長崎市)가 핵 보유국의 군함이 나가사키항에 들르는 것을 거부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오키나와(沖繩)에서도 시가 핵 금지를 결정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도시자치체는 국가에 대항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 프랑스에서도 미테랑 대통령은 핵을 찬성하나 도시자치체는 반핵이 되어 있다. 도시자치체는 이같은 일을 할 수 있었고 현재도 할 수 있다. 이같이 도시자치체의 힘을 늘림으로써 우리는 오늘날 갖가지 문제들, 얼핏 보기에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문제도 희망을 갖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청년이나 소년들이 자기 마음속 자유를 표현하는 방향을 도시자치체에서 발견할 수 있다. 도시는 청소년들의 희망 그 자체라고 해도 좋다.

죄 없는 아이들의 아름다운 건물

도시자치체로 사람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면, 복지라는 마음의 문제나 건축 문제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보기를 찾아볼 수 있다. 나는 맨 먼저 들고 싶은 보기로 문예부흥기의 자유 도시였던 이탈리아 피렌체가 건설한 육아원을 들고 싶다. 그 육아원 이름은 ‘오스페달레 델리 인노첸티’라고 한다. 피렌체에는 많은 훌륭한 문예부흥기 건물이 있으나 그 가운데서도 이 육아원이 가장 아름답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 이름이 또 얼마나 아름다운가? 인노첸티란 ‘죄 없는 아이들’이란 뜻이다. 이탈리아 문예부흥기의 피렌

체 시민은 버려진 아이들을 죄 없는 아이들이라고 했다. 이같은 일은 역사의 진보라 할 수 있다. 일본 국어 사전에 과연 죄 없는 아이란 말이 있을까? 일본에서 버려진 아이들을 부르는 이름은 기아, 고아, 사생아이다. 이 어느 말을 보아도 마치 버려진 아이 자신에게 죄가 있는 것처럼 들리는 말들이다. 피렌체 시민들의 생각과는 엄청난 차이가 그 말 속에 있지 않은가?

일본에서는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은 평생 동안 알지도 못하는 죄 의식을 짊어지고 살아가야만 한다. 그런 아이들을 보고 모두 불쌍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이상은 생각하지 않으며, 생각한다 고 해야 기껏 아이들이 고아로 태어나는 것은 그 아이의 운명이라는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여성해방 문제, 가족제도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권력과 개인의 자유 문제, 역사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일본에서는 아무도 생각해 보지를 않는다. 그래서 지금도 버려진 아이들을 고아 또는

사생아라 하고 있다.

문예부흥기의 피렌체 시민은 그들을 죄 없는 아이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또는 아이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되었던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여성을 해방시키기 위해 오스페달레 델리 인노첸티라 하는, 수많은 아름다운 건물 가운데서도 유달리 아름다운 건물을 세웠던 것이다.



▲ 1421년부터 24년 동안 공사를 해 1445년에 완공한 오스페달레 델리 인노첸티. ©위키백과

넓은 광장이 있는 그 건물 정면은 가파르지 않는 넓디넓은 계단이 펍 아름답다. 계단은 단지 높은 곳을 오르기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건축미가 있는 데는 그만한 까닭이 있다.

오스페달레 델리 인노첸티의 옆으로 넓지막한 그 계단은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여유가 있다. 그뿐 아니라 그 계단에는 기둥 몇 개가 세워져 있어 그 기둥 그늘에 숨어 어머니가 혼자 조용히 상념에 젖을 수도 있다. 말하자면 그 계단은 자유가 개인의 비밀을 지켜주고 있는 건축 양식이다. 이 점에 그 계단의 아름다운 뜻이 있다. 지금의 동경에 이같은 계단은 없다. 있는 것은 육교를 오르내리는 계단이 있을 뿐이다. 거기에 올라서서 밑을 내려다 보면 절망 끝에 투신자살이라도 하고 싶어지는 것들뿐이다.

언젠가 나는 참의원 법무위원으로서 일본 소년원의 설비 개선에 적은 힘을 바친 일이 있다. 그때 나와 같은 고등학교 동기생이었던 검사 총장이 “하니(羽仁) 의원의 주장대로 하면 비행소년들이 우리 자식들보다도 우대받게 된다. 내 집에도 스팀 난방 같은 것은 없다”고 하며 내 의견에 반대했다.

사람다운 사고방식으로는 불행한 아이들이 보통 아이들보다도 더 잘 대우받아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나는 “자네 가정은 행복한 집이지 않나, 행복한 집의 아이들은 스텝 난방은 필요 없을지 모르나 불행한 소년들을 위해서는 스텝 난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같은 근대 휴머니즘을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이 피렌체의 건축물이었다. 그 계단 그 건물을 보았을 때 나는 매우 감동하였으며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했다. 이 세상의 어떠한 탄생도 본래 자유로우며 평등하고 사랑받아야 할 어린애들인데, 그 가운데에는 사생아 따위의 차별을 조성하는 참혹한 사회와 그리고 그 사회의 책임을 그 불행한 아이들의 운명으로 돌려버리고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시대가 있다. 이같은 사람의 야만에 대해 맞서 싸울 새 시대 새 사회의 아름다움이 바로 이것이다 하는 것을 나는 오스페달레 델리 인노첸티에서 배웠다. 계단이란 더구나 육아원 같은 시설의 계단은 넷물에 몸을 던져버리려

는 것보다는, 그 계단을 오르고 싶게끔 불행한 어머니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라야 한다. 이런 기능을 갖는 계단이 진정 아름다운 계단이며 진정한 건축예술이라 할 수 있다. 불행하게도 일본에는 그같은 아름다운 건물도 없으며 ‘죄 없는 아이들의 육아원’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의 건물도 없어 모두가 넷물에 투신해 버리고 싶은 것뿐이다.

자유공화제 도시의 정치가 얼마나 사람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가는 오스페달레 델리 인노첸티의 보기 하나를 봐도 벌써 명백해졌을 것이다. 여하튼 현대 우리들은 고아를 고아라고 하면서도 예사로 여길 정도로 정신이 빈곤해져 있다. 텔레비전 같은 데서 뉴스를 보아도 전쟁 난민이 생겨 수많은 아이들이 배가 고프아 죽어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가 하면,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쌀이 너무 많아서 곤란하다든가 다섯 쌍둥이가 태어나 경사스럽다는 따위의 뉴스가 나온다. 이같은 것을 보고도 현대는 뭔가 괴상한 세상이라고 조

금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역시 입원치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주체성의 절멸 시대

자유로운 도시와 비교하면서 현대 사회가 어떤 시대인가를 생각해 볼 때가 왔다고 본다. 한때 학생 운동이 성했을 때 그때를 ‘주체성 위기의 시대’라고 했다. 지금은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렇다고 현재 사람들이 ‘주체성’을 회복했기 때문은 아니다. 오히려 현재는 개인의 주체성을 문제 삼아 생각할 수가 없을 정도로 주체성이 상실돼 있는 것이다.

주체성이 깡그리 사라져버렸다는 것은 자유로운 시민의 자유로운 정치에 의한 자유로운 생활이 없어져 자유로운 개인이 있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중앙집권력이 그만큼 비대해져서 우리들의 생활이나 마음까지도

더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탱크나 미사일 따위에 대한 동경심이 널리 퍼졌다는 뜻이다.

매우 아름다운 건물을 창조하는 정신은 사라지고, 예술에 대신하여 값싼 배우들이 빚어내는 이같은 현상은 그저 주체성의 위기라고만 할 그런 태평스러운 문제가 아니다. 현대는 주체성의 절멸에까지 이른 시대다. 최근 문학의 쇠퇴가 자주 논의되는데 이같은 현상도 우리들의 주체성이 절멸에 놓여 있고 그 배경에는 중앙 권력이 우리들의 마음속을 제멋대로 조작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예부흥기의 자유 도시에 왜 그렇게도 아름다운 예술이, 그리고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위대한 천재가 많이 출현할 수 있었던가. 그 배경에는 자유로운 사람의 자유로운 뜻에 의한 자유로운 정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예부흥기의 자유로운 도시가 붕괴한 것은 절대왕제(絕對王制)를 따르는 관료주의가, 지금으로 말하면 자

민당 같은 반(半)영구 보수정권이 수립된 때문이었다. 러시아도 최초에는 각 공화국의 자치로 해 나가려 했으나 히틀러가 침공해 왔기 때문에 이같은 결과가 되었다.

훌륭한 예술도 자치 도시에서 생긴다

역사의 어느 시대를 살펴봐도(예외는 이따금 있어도) 훌륭한 예술이 생긴 배경에는 반드시 사람의 자유로운 의지가 있었다. 또 문예부흥기나 그리스 시대에는 반드시 자유 도시가 있었다. 그리고 도시자치체에 의한 자유로운 정치가 있었다.

잊어서는 안 될 일은 중앙에 민중을 지배하려는 권력이 나타나면 자유 의지를 가진 시민이나 예술가들은 모두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런 싸움 속에서 가장 강력한 예술작품이 나왔던 것이다.

파리 코뮌에서는 어린아이들까지 손에 무기를 잡고 싸웠다. 같은 프랑

스에서 나치스 독일에 대한 ‘레지스탕스’가 있었고 그 가운데 사르트르, 카뮈 같은 누구나 잘 아는 위대한 작가를 비롯하여 많은 예술가들이 있었다. 일본에서는 군국주의에 항거한 예술가가 거의 없었다. 그리고 그 전통도 거의 없었다. 그래서 역사에 남을 만한 예술도 거의 없다. 지금 입 쓰다듬고 화단이나 문단의 우두머리 노릇을 하는 예술가 가운데는 전쟁 중에 ‘애국 예술’을 대량 생산했던 사람들이 많다.

여하튼 역사의 어디를 들추어봐도 지금의 자민당 같은 권력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곳에서는 위대한 예술가나 직업인이 있지 않았다. 자민당과 그 배후의 독점자본을 문제 삼지 않고서는 현대예술이 쇠퇴했다고 말해 봤자 아무런 뜻도 없는 노릇이다.

거지 왕자는 있을 수 없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자유로운

뜻대로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은 것은 틀림없다. 자기가 낸 세금으로 자기 목을 조르는 것과 같은 군대나 비행장이나 또는 토끼집 같은, 집이라고 할 수 없는 집을 지어주기를 바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병이 들어도 돈 걱정할 필요 없이 마음 놓고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나, 혼자 여러 가지 걱정 끝에 두통을 느끼더라도 산책만 하면 또는 목욕만 하고 나면 거뜬히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누구나 갖고 싶을 것이다. 이 같은 일을 위해 우리가 내는 세금을 써줄 것을 누구나 바랄 것이다. 그런데 권력자란 작자들은 절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지를 않는다. 자기들 이익이 되는 일 말고는 재미가 없는 작자들이다.

‘거지 왕자’라는 소설에 왕자가 거지가 되어 시민들의 생활을 돌아보고 그 생활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피부로 느낀다. 그래서 왕이 되고 난 뒤에는 그 체험을 살려 선정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현실로 이런 일은 절대로 없다. 권력자들의 머리는

국민들한테서 얼마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는가 하는 따위를 생각하기 위해 있을 뿐 치료비가 안 드는 병원이 어떤 것인지 상상도 못해 보는 머리로 되어 있다. 이같은 머리를 가진 작자들이 우리를 위해서라고 하면서 우리들의 세금으로 끼리끼리 찜짜미해서 도로를 만든다. 그 도로가 어떤 것인가 하면, 예컨대 명신(名神) 고속도로가 파손되었는데 어째서 파손되었는가 했더니 예상 이상으로 자동차들이 많이 다녔기 때문이라고 한다. 풍자하는 이야기로 어떤 집안의 가장에게 선반을 좀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그 선반이 얼마 안 가서 떨어져 버렸다. 그래서 아내가 “여보, 선반이 벌써 떨어졌어요” 했더니 그 남편은 “뭘 그 위에도 없었겠지” 하는 대답을 하더라는 것이다. 권력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기껏해야 이 정도의 일밖에 없다. 이 같은 중앙의 권력자들에게 “부디 우리들의 고통을 좀 알아 달라. 전쟁은 이제 싫다” 하고 아무리 호소해 봤자 일본의 수상 같은 작자들이 우리

의 마음을 알아줄 리 없다.

우리들의 세금은 우리들이 쓰자

그래서 논리스러운 사고방식으로
 는 중앙권력이란 게 그렇게도 터무
 니없는 것인 이상 우리들의 세금은
 우리들 자신이 쓰자는 것이 된다. 그
 러나 그같은 일이 오늘날 사회에서
 실현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
 할지도 모른다. 현재 헌법이나 법률
 정신으로 볼 때 자기가 자기 돈을
 쓴다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 않다. 도
 시자치체를 조직해서 우리들의 자
 유로운 뜻에 따라 치료비가 안 드는
 병원이나 아이들이 자유로이 놀 수
 있는 광장이나 도서관 또는 탁아소
 같은 것을 세울 수 있다.

지금이라도 도시에서 하고자 하
 면 안 될 일이 하나도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어떤 방법으로 그것이 될
 수 있는가는 ‘도시의 논리’에서 자세
 히 썼다. 예컨대 내가 그 책에서 실
 제 해 보고자 해서 실현했던 일의

하나로 동경전력과 공해방지 협정
 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이는 조그마
 한 일례에 지나지 않으나 모두가 하
 려는 뜻만 있으면 공해방지뿐 아니
 라 심신장애자에게 직업을 주는 일
 도, 재일한국인을 차별하지 않는 일
 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쟁을 막는
 일도 할 수 있다. 우리가 주체성을
 회복하고 자유로운 정신으로 참혹
 과 야만을 멀리하고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창조하거나 즐길 수 있는 나
 날을 보내는 일은 현재도 도시에서
 할 수 있다.

자유로운 도시를 만들고 지키자

도시란, 고층 빌딩이 숲을 이루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산다고 그것이
 도시라 할 수는 없다. 도시란 자유로
 운 시민의 자유로운 사회를 말한다.

현대와 같은 소름 끼치는 시대에
 우리는 누구도 혼자서 고립하여 살
 아갈 수는 없다. 그렇다면 국가 아래
 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만 하는 것인가 하고 생각하겠지. 그러나 국가란 군대도 가지고 전쟁도 한다. 신통하지 않는 주택이나 도로 건설을 자꾸 하며 공해가 심해도 태연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 국가이고 보면, 역시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길 이외의 삶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오십 년 넘게 연구해서 얻은 결론은 ‘도시에서 살아가는 길’이다. 도시자치체를 중심으로 살면서 우리는 자유를 회복할 수 있다.

국가의 중앙에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소리는 결코 들리지 않는다. 그저 일방으로 국가에서 명령하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다. 이 명령의 소리로 말미암아 우리들 머리가 이상하게 되어버리며 현재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나 도시가 우리들 생활의 중심이 되면 거기에는 우리들 개개인 소리도 들리고 명쾌한 답도 돌아온다. 도시가 이런 것임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모두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도시는 아름다운 것이다.

과거에 도시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냈는가. 그것은 별로 긴 세월은 아니었다. 짧은 기간 그것도 세계의 일부 지역에서만 나타났을 뿐이었지만 그렇다고 도시가 결코 취약한 것도 아니고 현재에는 실현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이 도시의 실현도 할 수 없다면 도대체 우리 희망은 무엇이 될 수 있겠는가? 절망뿐이다. 그러나 잠깐이 아닌 꾸준히 도시를 건설하고 그것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우리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자유로운 도시라면 우리가 살 만한 가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고, 세울 만한 가치 있는 건물을 세울 수 있고, 할 만한 가치 있는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마음이 생생하게 새로워진다

유럽 도시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나 자신이 겪은 것으로 말해보겠다. 내가 예전에 공부한 적이 있는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또는 이탈리아

아의 볼로냐나 피렌체에서도 시민들은 매우 친절했다. 그런데 일본에 돌아오면 마치 천국에서 지옥으로 돌아온 느낌이었다.

도시란, 집을 나서서 그 속을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자기 마음의 자유를 느낀다. 그런 곳을 도시라고 말한다. 동경에서는 집을 나서서 담배 한 갑을 사 오는 동안에도 정상 신경을 가진 사람이라면 네땀 번쯤 화가 날 것이다. 여기에서는 ‘소변금지’라는 입간판이 있는가 하면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공지가 있고, 아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없는 블록 담벼락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는 포르노 영화 따위의 광고가 다닥다닥 붙어 있다. 이런 상황 그 자체가 오늘날 일본인이나 동경 시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빈곤한가를 증명하는 것인데, 그런 거리를 걸어서 자기 마음이 자유를 느끼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거리를 걷고 있는 사람들 얼굴마저도 가와사키(川崎)의 하늘처럼 흐려져 있다. 이같은 일본에서 눈망울이 반짝거릴 수 있는 사람은 신흥종

교 따위로 구제받은 기분이 된 사람들뿐일 것이다.

유럽 도시는 그곳을 걷는 것만으로도 자기가 본래 자유로운 사람임을 실감한다. 이런 실감은 파리가 아닌 어느 도시에서도 느낄 수 있다.

‘도시가 사람을 자유로이 한다’는 유명한 격언은 하이델베르크나 피렌체 같은 도시에서 옛날부터 들었다. 이는 격언의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 도시는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 그리고 친절하게 한다. 일본에는 도시가 없기에 이웃집 피아노 소리에 발각 성이 나서 살인을 하거나 뒤따라오는 차의 빵빵거리는 소리에 그만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살인을 했다는 따위 이상한 일이 빚어진다. 유럽에서는 먼저 간 사람이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 문을 밀어주는 것이 상식인데 일본에서는 대부분 자기만 통과하면 그만이고 심지어 뒤에서 누가 온다고 눈치채고 문을 밀고 있을라치면 그 틈을 제가 먼저 빠져나가버리는 암채도 있다.

이는 결코 일본인의 국민성이 비

열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일본에는 도시가 없기 때문이다. 유럽 국가들의 국민성이 본래 친절하기 때문이 아니다. 거기에는 도시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친절한 것이다.

유럽 도시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나체 조각이 어째서 것처럼 힘차고 아름다운가? 일본의 조각은 반대로 왜 그렇게 빈약하게 보이는가? 이는 일본인의 체형이 서양인보다 열등하기 때문은 결코 아니다. 유럽 조각은 허식을 벗어던진 도시 자유시민 정신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일본 조각이 빈약하게 보이는 까닭은 사람 몸을 마치 성기의 연장으로 보는 ‘인식의 소산물’이기 때문이다. 사랑과 섹스는 자유로운 사람끼리 정신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데도, 일본은 이런 관점에서 하는 교육이 아주 없다. 오직 성기 교육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이같은 현상도, 요컨대 일본에는 도시가 없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성(性)이나 애정도 도시에서 비로소

실현할 수 있다. 아름다운 나체 조각은 이같은 자유로운 성과 애정을 나타낸 것이며 또 그것을 보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다. 의심나는 사람은 미켈란젤로의 다비드를 보라. 또는 피에타를 보라.

자유 의 상징 ‘광장 아고라’

진정한 도시의 중심에는 자유로운 사람이 자유로이 교류할 수 있는 광장이 있다. 이런 광장이 최초로 만들어진 것은 고대 그리스의 도시였다. 그 이름은 ‘광장 아고라’다.

도시 중심에 광장을 만들었다는 것은 지리 조건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도시 자유시민의 자유정신을 표현한 것이다.

이는 여느 나라처럼 권력자의 머릿속이나 수도 한복판에 군주가 버티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바로 그와 반대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꼭 들어맞는다. 말하자면 도시 중심에

아고라 광장을 둔 것은 고대 그리스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에서 지적인 노예제도 문제를 빼고는 누구나 차별 없이 받아들이고 자유로이 이야기하고 교류한다는 정신이 이미 있었다는 것이다. 그같은 자유정신의 표현으로서 광장이 도시 중심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는 고대 그리스뿐만 아니라 나중에 문예부흥기의 도시도 마찬가지였다. 사람들 정신의 중심에는 자유가 있었고 이 자유정신이 광장을 만들었고 그 광장에서 시민의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하는 갖가지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다.

동경의 신주쿠(新宿) 역에 지하광장이 있으나 그것은 학문 건지로나 건축미로 보나 광장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래도 잠시나마 자유를 갈구했던 동경 시민과 학생들이 거기에 모여 이야기도 주고받았고 때로는 기동대와 싸우기도 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도 얼마쯤 있을 줄로 아는데 결국 거기가 광장의 구실을 조금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유를 갈구했던 우리 민중은 눈물을 머금고 흠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거기가 도시의 광장이었다라면 사태는 달랐을지도 모른다. 지금은 몇 사람이 같이 발걸음을 맞추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는 모두 광장에서 만나자

광장이란 그저 넓은 터전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다. 광장이 시민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는 그리스의 고대 도시 그것도 가장 완전한 형태로 발굴된 ‘푸리에네’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인구 약 오천 명의 작은 도시 푸리에네 중심을 이루는 아고라(광장이라는 뜻)는 어느 큰 도시에 견주어도 부끄럽지 않는 광장이다. 고대부터 전해오는 대리석 구조물로서는 가장 이름답고 가장 명량한 광장이다.

광장에는 자유로운 사람들이 모인다. 광장 둘레에는 의회, 시청, 집행부 따위 대리석 건물이 있다. 그

건물들은 모두가 현재 동경의 의회 건물보다 훨씬 아름답고 훌륭하다. 건물로서 훌륭할 뿐만 아니라 푸리에네시 큰 거리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광장 중심에 자유로운 자치가 기능을 떨치고 있었던 것이다.

장차 이같은 광장이 일본에도 세워졌다고 하자. 저녁때가 되면 자유시민들이 거기에 모여들겠지. 그리고 서로서로 생활의 고뇌와 희망과 사랑을 속삭이게 되겠지. 거기서는 벌써 하니 고로오(羽仁五郎) ‘네 마음이 전쟁을 부른다’ 따위의 책을 읽을 필요조차 없을 것이고 그런 책이 언제 있었던가 까맣게 잊어버리겠지. 이미 사람들의 마음에서 전쟁 따위는 자취조차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반전론은 늑대소년이다’ 하는 논의가 있다. 전쟁이 난다 난다 떠들고

있으나 아직 전쟁은 시작되고 있지 않으니, 머지않아 반전론 자체가 아주 불신당할 것이라 한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엄청난 과오다. 일본에서도 미국에서도 지금까지 평화가 지켜지고 있는 까닭은 모두가 반전론 다시 말해 “전쟁은 싫다, 절대 반대다” 하고 외쳐 왔기 때문이다. 그것도 부족해서 오늘날은 우경화가 슬금슬금 진척되어 가고 있다. 반전의 외침을 더 높게 모아야 할 판이다. 이 책이 그 일에 도움이 되기를 나는 기도하고 있다. 예언처럼 들릴지 모르나 아직 괜찮다든지 벌써 틀렸든지 누군가가 막아줄 것이라든지 그들에게 맡겨두면 되겠지 하고 있다가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고 만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 둔다.

툰드라 - 북극권

홍석화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회원
지은책으로 《한국의 토종101가지》, 《한국의 토종기행》,
《토종문화와 모듬살이》, 《청산에 살어리랏다》가 있다.

제4절 이누이트

1. 전승

기원전 4000년쯤, 그러니까 단군
신화 무렵입니다. 이누이트들의 이
동경로는 추코트카 → 베링해 → 캐
나다 북부 → 그린란드로 이어집니
다. 여기에 몇 가지를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 ① 그때는 베링 해가 서로 이
어지는 지형 조건이었다는 점
- ② 평면지도로 보면 상상하기
쉽지 않은 일이나, 지구본을 놓
고 위의 지도를 살펴보면 수긍
하기가 훨씬 쉬워진다는 것

10세기~15세기 약 500년 동안
그린란드 남부에 정착했던 노르웨
이 바이킹들을 통하여 온몸으로 이
누이트 삶을 몸에 배려고 했던 전설
로 남을만한 일본 사진작가 호시노
미치오를 보면, 이와 관련된 흥미로
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날 일을 아는 장로들은 이제 다
없어져 버렸어. 어쩔 수 없는 이야기”
어느 날 나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엘
킨키크를 만나 대화를 나눴다. 엘은 알
래스카에서 에스키모 전통 댄스를 가장
힘차게 추는 이 마을의 핵심 인물이었
다. 그가 갑자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
나 들려주었다. “그린란드의 에스키모
마을에 춤을 추러 간 적이 있었는데, 거

기 살던 어느 노인이 노래 중 몇 가지를 들은 적이 있다는 거야. 우리가 고래잡이 댄스를 출 때 부르는 노래 중에는 몇 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온 곡이 몇 가지 있거든…….”

베링해를 건너온 동아시아인이 똑같은 고래 노래를 품고 그린란드까지 퍼져 갔다는 뜻일까?

이럴테면 우리 민요 아리랑을 떠올리는 대목이지요.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민족이 아리랑을 부르면 말없이 서로 통하듯이 말이죠. 전 세계 어느 토종 원주민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구비전승, 말과 노래와 이야기로 전해지는 삶의 정수들……. 이누이트들 중 한 부족 ‘토타 신화’ 채록도 한 장로의 죽음 직전에 유언처럼 녹음되지요.

‘지금부터 들려줄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란다. 그러니 잘 들도록 해라……. 영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꺼릴 일이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얻었는지 가르쳐 주

겠다…….

옛날 옛적에 있었던 일이다. “사람들을 위해 고생을 참아야 하네.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 불꽃을 가지고 와야 하네.”

얼굴을 온통 불꽃이 뒤덮였으나 젊은 매는 기어이 땅으로 불꽃을 가져올 수 있었다. 그 불꽃을 지상에, 언덕에, 강물 속에 던져졌다. 그 순간 온갖 들짐승, 날짐승, 물고기들이 영혼을 얻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숲의 나무들도 쭉쭉 자랐다……. 이제부터 시대가 크게 변할 것이다. 그러나 숲만은 지켜야 한다. 숲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 호시노 미치오, 111~114쪽.

이럴테면 추코트카, 알래스카-그린란드로 이어지는 아득한 빙설 지대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무수한 고래 뼈 무더기나 돌 무더기도 언뜻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엔 북극 대탐험(Great North)에 나오는 나누크(Nanuk) 씨의 손자가 중얼거리던 읊조림처럼, 고래들과 괴로움도 즐거움도 함께

해은 5천 년 역사와 선조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2. 바다오리 알

그래도 BBC의 최근작 프로즌 플래닛(frozen planet 6편)에 보면, 해안지역에서 사는 이누이트(추코트카)들이 아주 위험한 바위 절벽을 내려가 바다오리 알을 주워오는 과정이 상세히 나오지요.¹⁾ 이 장면을 보며 떠오르는 것은 히말라야 석청꾼들이나, 중국·동남아 고산지역에서 어렵사리 제비집을 따오는 원주민들입니다. 가히 ‘곡예’라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위험한 곳에서 가녀린 밧줄에 몸을 의지하곤 벌꿀이나 제비집을 온 몸뚱이의 몸놀림으로 능수능란하게 따내는 묘기란!

이와 장면이 겹치면서 제 상념 속에 함께 진행되는 장면은, 서울을 비롯한 큰 도시 빌딩에서 유리창 닦는

일입니다.

심지어 첨단 문명과 개발의 첫 주자로 못 부러움을 사고 있는 두바이에 세계 최고층 빌딩 부르즈 할리파 조차, 결국 건물 밖 유리창 닦기는 사람이 하더군요. 새폐들이 내질러대는 똥을 닦아내야 하니까요. 비둘기 1마리당 1년에 12kg를 싼다고 하네요. 건물 전체를 한 바퀴 차례차례 닦는데 3달이 걸리는 이 작업은, 가히 세계 최고 높이의 공중 곡예라 하겠습니다. 3달 지나면 같은 작업을 새로 시작하니까 1년에 5번 닦는 셈이 되겠네요. 특별히 동원되는 장비라야 별 것 없습니다.²⁾

동시에 또 떠오르는 것은, 현대에 와서 새롭게 만든 체육이라 할 수 있는 ‘번지 점프’입니다. 또 이와 비슷한 훈련 종목이 군대의 ‘유격 훈련’이겠지요.

자꾸 이어지는 상념의 나래는, 아프리카나 파푸아뉴기니 등지 원주민들이 지금도 하고 있는 ‘성년식 필수 과정’ 중의 하나인 ‘옛날식 번지

1) 김옥진 번역, -12 공리

2) 2014년 1월 7일 BBC Knowledge 방영.

점프'로 흘러갑니다. 하여튼 BBC 해설자가 이 대목에서 한 말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고난도가 요구되는 작업이지만, 도시락을 싸올 필요가 없다는 게 장점입니다.”

돌간 족의 바위 타기 채집자는 바다오리 알을 어렵게 꺼내온 뒤, 밧줄에 매달린 자세를 안정시키고 나선 그 자리에서 알을 깨트려 한 입에 꿀꺽 즐기지요. 사냥과 채집의 즐거움은 이 컴퓨터와 ‘게놈’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으로써는 저 잃어버린 고향의 엄마 품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912년, 조난당한 북극 탐험대가 90일에 걸린 생존기를 기록한 극지 문화의 고전, 알바노프(Albano) ‘위대한 생존(2003. 갈라파고스)’에 보면 꽤 흔하게 눈에 띄는 오리들을 잡아 소중한 식량을 마련하는 장면이 몇 군데 나오지요.

나는 루나예프가 갖다 준 오리고기와 오리 알을 게걸스레 먹어치우고 나

서야 이 게으른 동료들은 힘든 일에 착수할 힘을 얻었다. 아침 일찍 나는 4명을 보내 두 번째 썰매와 카약을 가져오게 했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막사를 세우고 새와 알을 구해오라고 했다.

돌아오는 길에 솜털오리 두 마리를 잡았다. 정오 무렵 맛있는 스크램블에 그를 만들어 먹었다. 알은 얼마든지 있었다. 손만 내밀면 무수히 많은 새둥지 중 하나가 손에 쉽게 잡혔다. 오후 5시 무렵 사냥을 떠났던 사람들도 비슷하게 막사로 돌아왔다. 그들도 솜털오리를 13마리나 잡아왔다.

- 2002 동지, 154~156쪽.

KBS스페셜 ‘추코트카 -백야와 툰드라의 땅’에 보면 바다오리는 북극권 툰드라의 넓은 범위에서 살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바다쇠오리는 분포 지역도 엄청나게 넓고 개체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아서, 우리 이누이트들이 그 알을 줌 슬쩍 해 먹어도 생태계 유지·보호엔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툰드라-북극권은 이렇게 살아가지요.

툰드라 지대는 삼림 지대와 얼음의 세계를 나누는 지역이다. 이곳은 지구의 육지 면적 가운데 10분의 1을 차지한다. 짧은 여름이 오면 툰드라의 호수와 작은 강에는 남쪽에서 물새가 날아온다. 오리, 기러기, 뇌조(雷鳥)도 날아온다.

- 상동, 36쪽.

“머지않아 영원의 고기가 오기 시작한다.” 러시아의 민족학자 시무첸코가 시베리아의 타이미르 반도를 조사했을 때이다. 타이미르 반도는 툰드라 지대이다. 그곳에 있는 한 노인은 ‘영원의 고기’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을 받자 그것은 소원이라고 대답했다. 철새를 기다리는 소원을 말하는 것이다.

툰드라의 봄은 금방 지나간다. 봄은 철새가 오는 계절이다. 북극인은 철새를 애타게 기다린다. 소원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게다가 이곳에 소원이 머무는 기간은 2주 정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될 수 있는 한 많이 잡아야 한다.

소원이 어째서 ‘영원의 고기’일까?

“아무리 잡아도 줄어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같은 수만큼 옵니다.”

- 상동, 53~54쪽.

그렇다고 아무 새나 보이는 대로 다 잡아먹는 건 아닙니다.

툰드라와 삼림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새라고 무엇이든 잡아먹지 않는다. 시베리아 각지에서는 독수리를 다치게 하면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가끔 독수리가 밧에 걸려 죽으면 자작나무 껍질로 싸서 나무 위에 올려놓는다. 백조 또한 괴롭힌다거나 죽여서는 안 되는 성스러운 새이다.

- 상동, 54쪽.

KBS스페셜 ‘추코트카 -백야와 툰드라의 땅’, SBS ‘병만족’…… 각종 북극권 툰드라 지역을 촬영한 다큐들에는 어김없이 새들의 이동이나 군락지들이 나옵니다. 물론 서식지 환경은 새들이 살기에 알맞은 조건이겠지만, 무엇보다도 인구밀도가 낮기 때문에 다양한 새들이 편안하

게 살면서 만들어진 정경들이겠습니까.

알이란 게 그 자체가 참 신비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동물의 시작이자 출발이지요. 또한 번식으로 ‘생명을 오래 이어가는 성질’이기도 하구요. 형태와 구조·작용들은 무수히 다 다르지만(물고기 알들은 안 그렇지만), 대부분의 알들은 타원 모양의 공 모습이라는 것도 공통점 하나만 있습니다. 완전한 공이라면 동지 밖으로 저절로 굴러 떨어질 위험이 커지겠지요.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 품 안의 이리저리로 골고루 굴리기에 좋구요. 알을 낳는 곳 또한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어떻게든 ‘천적’의 접근을 막아보려는 종합 선택이겠습니까. 땅속(거북이나 악어), 눈에 잘 안 띄는 덤불 속과 나뭇등걸, 바다오리처럼 깎아지른 절벽 중간…….

불가사리는 한 번에 2백~3백만 개의 알을 낳는다는데, 바다오리를 1년에 단 한 번, 단 한 개의 알을 낳

는답니다. 그러니 그 귀한 알을 절벽 바위틈에 낳아서 아무도 못 다가오게 하는 거지요.

황제앵귤, 악어, 가시고기 따위의 알 지키기 작전은 눈물겨운 모습으로 익히 알려져 있지만, 이 알들을 훔쳐 빼앗으려는 천적들의 노력 또한 만만찮아서 시수 vs 강탈은 동물들 ‘약육강식’의 전쟁터이기도 합니다.

수렵·채취 시대가 지나 가축들의 알을 사람이 늘 먹기 위해 닭, 오리, 메추리, 칠면조 따위를 집에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에서 동물의 알을 빼앗아 먹는 것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은 일이니까요. 그래서 무난하게 길들여져 대량생산이 가능한 게 ‘달걀’일 텐데요.(1800년대 이후) 이 또한 현대 문명의 구조에 관계되는 폐해(공장식 케이지양계)를 한목에 안고 있는 골칫거리로 여겨집니다. 닭을 키워보신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한 소식’ 하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되는데, 그것은 그

만큼 닭 자체가 ‘야생성’을 아직도 강하게 지니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지요.

거의 모든 알들은 사람이 먹어도 해롭지 않지만 ① 두꺼비 ② 무당개구리 같은 독(Dart) 개구리 ③ 동갈치(gar fish, needle fish)들은 독성이 있다고 하네요. 대표할 만한 독성을 가진 ‘복어 알’의 경우는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복어 알, 복어 내장, 복어 피는 법으로도 팔고 사는 것이나 기증까지 금지돼있는데, 일본에서는 복어 알을 소금에 절여 10년 동안 발효한 복어 알젓 후쿠노코 누카즈케(ふくの子糠漬)를 일본 3대 진미로 친다니 놀랍지요?

그런가 하면 국내에서도 복어 알의 항암효과가 술술이 알려져서, 이를 본인들이 직접 수집·제조해 드시는 분들도 꽤 있는 거 같습니다. 어떤 분은 법의 규제를 피해 아예 동남아로 이주해서, 제대로 된 치료 작전을 펼치려는 분도 계신다고 하

네요. 결국 “독약은 독이자 약이기도 하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 절대 틀린 말이 아닌 거지요.

흔히 세계 3대 진미 알로 말하자면, 캐비아(철갑상어), 연어, 송어(어란), 성게들을 치는데 그밖에 성게알젓, 해삼 알, 도다리 알젓들도 최고급 알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잡는 게 금지돼 있는데 보통 산개구리 알이라고 부르는 늦가을의 개구리 수정란(검정색)을 숯불에 구워 먹는 것 또한 별미 중의 별미지요.

오리 알도 요즘은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역시 그냥 먹는 것 보다는 중국 음식인 삭힌 오리 알 송화단(松花蛋)을 으뜸으로 칩니다.

3. 홍합³⁾

별거 아닌 얘기입니다만 북극 대 탐험(Great North)란 이 작품이 참

3) text : ① Hydro Guebec. Great North 2001년 작 M.J.Dignard 감독

② BBC. 휴먼 플래닛 3. 북극의 생존자.

재미납니다. 1920년에 제작된 기록 영화 ‘북극의 나누크(Nanuk of the North-흑백 필름)’란 게 있는데요. Robert. J. Flaherty란 촬영 기사가 큰맘 먹고 단단히 준비해서, 캐나다 북동부 허드슨만 일대의 이누이트 들 생활상을 생생하게 찍었는데 그때 일반인들에게 상당히 호응도가 높았던가 봅니다.

헌데 이 북극 대탐험에서는, ‘북극의 나누크’ 주인공이었던 나누크(흰 북극곰이란 뜻)의 손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손자가 자기 친할아버지 나누크를 기리며 이야기의 전개가 이루어집니다.

이를테면 ‘북극의 나누크’의 속편이 북극 대탐험이라고 볼 수 있지요. 80년의 세월이 단박에 느껴지지요. 또 할아버지에서 손자로 이어지는(땅을 바탕에 둔) 이누이트 삶의 정신 연속성이랄까……. 그런 걸 잔잔히 전해주는 매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두 편의 다큐는 한꺼번에 같이 볼 때 그 진가가 더욱 빛을 내

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헌데 북극 대탐험 후반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촬영돼 있습니다. 바로 홍합 채취 장면입니다. 북극권 그 추운 바다에 ‘홍합’이라니…….

그렇습니다. 이 바다 밑에도 홍합이 살고 있습니다. 살 색깔이 붉어서 ‘붉을 홍 자’와 ‘합할 합 자’ 이름을 지니게 된 홍합. 여름이 오기 직전 유빙까지 녹아내리기 시작할 무렵, 단 며칠간 그러니까 “만월이 뜬 썰물 때”만 쫓 수 있는 홍합. 썰물 때 물이 빠지면, 유빙 사이의 얼음동굴 바닥에 있는 홍합 밭. 그걸 어떻게 찾아낼 수 있었을까요? 언제인가 누가 어찌어찌한 연유로 그곳엘 가보았고, 홍합을 발견했겠지요.

허기야 북극곰도 주 먹이인 바다 표범이 영~ 시원찮고 너무나 굶어 허덕일 때면, 바닷말을 뜯어먹으며 허기를 달래곤 하지 않던가요.

이무튼 나누크의 손자는 할아버지한테서 배운 곳과 시간, 채취 법으로(이제는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얼

음동굴 밑으로 들어갑니다. 사다리는 해체한 개썰매의 골격으로 만들었답니다.) 재빨리 움직여 이 진귀하고 특별한 음식을 가끔 그 자리에서 까먹기도 하죠.

“아들에게 이곳을 알려주고, 채취하는 방법도 익히게 되어 무척 기쁘다.” 이 흥합 받은 우리네 속담인 “송이 받은 친자식에게도 함부로 알려주지 않는다”를 떠올리게 합니다.

증후군	지역	증상
아모크(amok)	말레이시아 ⁴⁾	마음 아파하다가 난폭행동, 피해의식, 기억상실, 탈진 따위의 증상이 나옴. 여자보다 남자들에게서 더 자주 나타남.
아타크(ataquede nervios)	라틴 아메리카	주체할 수 없는 외침, 울음 발작, 몸 떨림, 가슴에서 일어나 머리까지 치미는 열화, 언어 공격이나 신체 공격, 발작, 실신.
유령병(ghost sickness)	아메리칸 인디언	악몽, 쇠약, 위험을 느낌, 식욕부진, 기절, 어지럼증, 실신, 환각 의식상실, 질적감.
코로(koro)	말레이시아, 중국, 태국	남근(남자의 경우)이나 음순의 유두(여자의 경우)가 몸속으로 들어가서 죽게 될 것이라는,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극심한 불안.
라타(latah)	동아시아	지나치게 깜짝깜짝 잘 놀람, 몽환에 가까운 행동을 함. 중년 여성에게서 가장 자주 나타남.
수스토(susto)	멕시코, 중앙아메리카	크게 놀라고 나서 생기는 식욕부진, 수면장애, 슬피함, 동기결여, 자기 가치관이 떨어짐. 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영혼이 자신들의 몸에서 떠났다고 믿고 있다.
타이진 쿄 후쇼(taijin kyofusho)	일본	자신의 몸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당혹스럽게 하거나 해를 끼칠 것이라는 극심한 공포.
화병(hwa-byung)	한국	화(분노)를 억제하는 데에서 생기는 불면, 피로, 공황, 압박한 죽음에 대한 공포, 호흡곤란, 빈맥, 정신동통, 소화불량, 윗배에 덩어리가 있는 느낌.

4) 그밖에 라오스,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푸에르토리코에서도 발견됩니다.

4. 북극 히스테리

들어보셨나요? 저도 처음 조사·탐색해 보니 눈덩이 불어나듯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는 거 있죠. 그래 한번 요약·정리해 볼까 합니다. 우선 이것은 정신의학계에선 엄연한 한 가지 질병으로 규정해놓고 있더군요. 북극 히스테리(Arctic hysteria)라고 하구요. 현대 이는 좀 더 넓은 범주의 질병인 「문화 연관(연계) 증후군」 중 하나로 다루어집니다. 정신의학 분야뿐만 아니라 심리학, 인류학 쪽에서도 일정 부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문화 특유 증후군의 ‘DSM-IV: 정신 질환의 진단과 통계 편람 제4판’에 보면, 문화 특유 증후군의 증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어떤 문화에는 오직 그 문화에서만 발견되고 DSM-IV의 어떤 장애 범주에도 들어가지 않는, 증후군이나 정신 장애가 있다는 겁니다.

표를 보면 희한하게도 우리나라의 화병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 연관 증후군」이란 질병이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 대충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좁히자면 북극 히스테리와 (울)화병을 함께 놓고 생각해 보면, 북극 히스테리라는 게 왜 독특한 한 지역 문화의 질병으로 인식되게 되었는지 얼추 느낌을 알 것 같군요.

아무튼 원주민이 아닌 외래인(이방인)도 그런 증상을 보인 경우도 종종 있어왔지만, 대개는 이누이트들에게 많이 발견되고 포착된 이 히스테리 증세는, 여하튼 한 가지로 “넋이 나가 자기를 잊어버린 상태”를 뜻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시베리아 벌판에 착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해가 뜨면 밭에 나와 일하고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가는 착한 농부였습니다. 그날도 온종일 일한 농부, 문득 뒤돌아보니 커다란 태양이 막 지평선 너머로 지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너무나 이름답고 황홀했습니다. 농부는 순간 들고 있던 삽을 놓고 지는 해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커다란 태양 속

으로 빨리 들듯, 들을 가로질러 나를 건너 숲속을 지나 끝없이 갑니다. 해가 지고 아름다운 황혼이 하늘 가득히 펼쳐 집니다. 농부는 이 장엄한 자연에 취해 줄곧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윽고 사방이 어두워집니다. 춥고 배고프고 지친 농부는 끝내 쓰러지고 이리떼의 밥이 되고 맙니다.”

- 러시아 전래 동화

끝없이 펼쳐진 시베리아 벌판, 황홀한 저녁 햇빛 앞에 넋이 나간 몽환의 상태를 정신과에서 ‘북극 히스테리’라 한다. 아! 분명 이 농부는 죽는 순간 지극히 행복했을 것이다. 아름답게 지는 해를 끝없이 자기 원대로 바라보다가 이리 밥이 된 이 농부는 진정 행복했으리라. 생애 마지막 순간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충동에 철저히 따랐기에. 우리 현대인의 삶이란 늘 무언가에 쫓겨, 무언가에 이끌려, 무언가에 구속되어 마음의 순수한 충동을 외면하며 살고 있지 않는가?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생의 전부라면 생이란 너무나 작은 것이 아닐까? 그 원인을 알지 못했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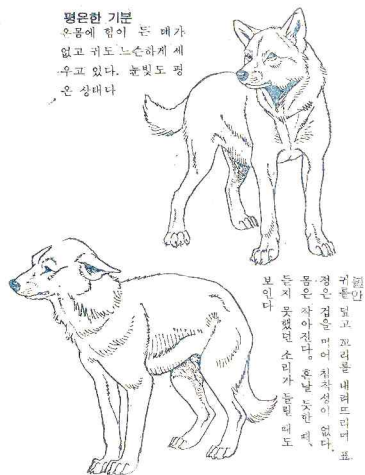
젊은 날에 독한 열정과 동경은 이미 많이 가졌지만, 그래도 죽는 날까지 될 수 있는 대로 내 마음의 충동에 따라 충실히 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한다.

종합 정리를 제 나름대로 해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 같습니다. 원래 삭막하고 황량한 눈바람이 휘몰아치는 북극의 대자연 앞에서(이는 튼드라도 거의 마찬가지) 보잘것없이 약한 생물체인 한 인간이, 각자 지내고 있는 여러 경험 축의 바탕에서 갑작스레 한동안 ‘자신을 벗어난 상태’를 겪게 되는 거죠. 한 마디로 미쳐 버리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더구나 원주민이 아닌 경우 그 가능성은 몇 배나 더 많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가끔 극지 탐험가들이 몸이나 정신으로 한계를 건디는 것을 높이 평가하게 되지요.

헌데 이누이트들의 경우에도 사면은 있어 왔고(이들의 종교적 뿌리이니까) 가끔 외지인이 이런 사면의 ‘무병과정’이나 ‘의례과정’을 본 경

우, 서양인들으로써는 상당한 경험이 이미 있는 전문 학자라면 혹시 모를까 그건 그냥 미친 사람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북극 히스테리라는 ‘문화 연관 증후군’의 범주 안에는, 서양인과 만나면서 생긴 “서양인들의 다른 행태와 사고방식”이 이누이트들을 미처 버리게 만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



동물과 나누는 마주이야기

増井光子(마스이 미쯔코) 일본 수의사이자 동물원 원장.
《동물과의 대화》 책에서.

앞장에서 나는 동물들이 얼마나 민감하게 사람의 표정과 몸짓을 파악하여 사람의 마음을 알아내는가를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사람이 동물을 관찰한 것은 참으로 엉터리다. 사람은 말과 글자로 의사소통을 하여 왔으니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동물만큼은 알 수 없더라도, 조금만 더 주의 깊게 그들을 보면 참으로 갖가지 의사표시와 감정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잖아도 동물들은 끊임없이 사람에게 말을 걸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뜻밖이라고 생각할는지 모르

나 동물들은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어 애태우고 있는 것이다. 개나 고양이, 말 같은 가축은 말할 것도 없고 내 경험으로는 우리 속에 있는 야생 동물이 훨씬 더 사람에게 다가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이 여겨진다.

예컨대 운동장에서 방으로 끌려들어 온 사자 중에는, 사람이 방 가까이 가면 다가서는 일이 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이 얼굴을 쳐다보기도 한다. 이런 광경을 보면 고양이나 개보다 훨씬 더 사람을 따르지 않나 생각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조심하지 않고 덤석 손을 내밀지는 못하지만…….

생각해 보면 동물원에 온 동물들은 먹고 자는 것이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색다른 자극을 바라고 있다. 달리 말하면 따분해서 사람과 나누는 교류에 자극을 바랄 수도 있다.

이것은 사육되고 있는 동물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야생 동물의 행동을 조사하러 간 연구자들 중에는 고릴라 · 침팬지 · 이리들과

친해지는 이야기가 많다. 이 친밀해진 동물은 어릴 때부터 사람에게 길러진 것이 아니다. 동물들이 그들의 뜻으로 사람에게 다가온 것이다.

구도르의 침팬지 이야기를 읽으면 맨 끝에 매우 감동스러운 장면이 나온다. 침팬지와 아주 친해진 구도르가, 어느 날 커다란 수컷 침팬지와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 앞에 나무 열매가 하나 있었는데 구도르는 그것을 침팬지에게 주었다. 침팬지는 그것을 먹고 싶지 않아서 구도르의 호의를 무시하였다. 그러나 그녀가 자꾸 나무 열매를 내밀자 그 침팬지는 그것을 받아 밑에 놓은 다음, 그녀의 얼굴을 찬찬히 보더니 손을 잡았다. 침팬지는 구도르의 호의에 예의로써 보답한 것이다.

종류가 다른 동물 사이에 이와 같은 대화를 할 수 있는 동물은 사람이외에 없다고 나는 믿는다. 돌고래가 아무리 말을 걸어도 고릴라와 친해지지 못하는 못할 것이다. 예외가 있기는 하나 대개의 동물에게 종류가 다른 동물은 적이거나 무해하고 관계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다만 사람만이 다른 동물에 대하여 그들의 의사소통 방법을 이해하고 그것을 대화에 이용할 수 있다.

게다가 사람에게는 다행한 일인지 불행한 일인지, 몸에 많은 원시성이 남아 있고 특수화가 진전되어 있지 않다.

특수화가 진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만 동물에 맞춰서 살 수도 있다는 좋은 점이 된다. 호기심은 왕성하고 식성은 잡식성이며 온갖 환경에 적응하여 생활권을 넓힐 수 있다.

우리는 만 종류의 동물들이 걸어오는 말에 충분히 응답할 수 있는 단 하나뿐인 동물이다.

이것은 자랑할 만한 점이다. 사람에게 재미를 느끼고 저쪽이 먼저 다가오려 하는 동물로 하여금 사람을 못 믿게 만드는 것은 우리들 자신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크게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사람과 가장 연관이 많은 개 · 고양이 · 말 · 원숭이(침팬지를 포함함) 이 네 종류의 동물에 대하

여, 어떠한 심정일 때 어떠한 표정과 몸짓을 하는지를 보자. 고양이 이야기에는 참고로 사자도 포함해 두었다.

1. 개

온화한 기분으로 있을 때

개뿐 아니라 동물의 표정은 귀 · 눈 · 입 · 꼬리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얼굴에는 살갓 근육의 한 가지인 표정 근육이라는 얇은 근육이 살갓 밑에 있으며, 그것을 늘이고 줄여 갖가지 표정을 만들어 낸다. 이 근육은 사람이 가장 잘 발달되어 있으며 사람 표정이 풍부한 것은 이 때문이다. 동물의 경우 표정 근육은 입 가장자리에 잘 발달되어 있는 것 같다.

개가 기분이 좋을 때는 귀를 반쯤 선 채 긴장되어 있지 않으며 눈초리도 부드럽다. 입은 가볍게 다물려 있다. 몸도 긴장이 풀려 있고 꼬리는 처져 있거나 살짝 올라가 있다.

배도 고프지 않고 운동도 충분히

했으며, 주인도 곁에 있고 몸이 불편한 곳은 한 군데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기뻐서 뒹굴고 싶은 것도 아니고 단지 그저 ‘기분이 흐뭇하군’ 하고 개가 느끼고 있을 때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꾸룩꾸룩” 목구멍이 우는 소리가 난다.



불쾌
귀를 뒤로 젖히고 기분에 따라 코에 주름을 세운다. 상대 빛이 (자리로 가라)고 한 바에 흔히 보인다. 으르렁댄다



공포
주인에게 심히 온나거나 광적이 뒤쫓아 올 때의 표정. 비명을 지를 때도 있다

불안을 느낄 때

개는 낮은 거리에 나갔을 때나 자기보다 세 보이는 개를 만났을 때,

또는 자기가 주인에게 꾸중 들을 것 같을 때는 공포심이나 경계심과는 좀 다른 불안한 기분이 되기 쉽다. 개의 성격에 따라 별로 불안한 빛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만약 개가 다음과 같은 표정과 행동을 하면 틀림없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해석하여도 좋다.

귀가 처지거나 바쁘게 움직이며 동작이 침착하지 않고 눈도 쉴 새 없이 움직인다. 윗눈썹·옆눈썹으로 상대방을 관찰한다. 꼬리는 처지고 엉덩이가 약간 낮아지며 몸에는 긴장감이 없다. 그리고 개가 불안을 느끼고 있을 때는 킁킁거리기도 한다.

불쾌하거나 분노하거나 위협을 나타낼 때

귀를 뒤로 눕히고 입술을 일그러뜨려 송곳니를 약간 드러낸다. 불쾌감이 심해져서 오히려 분노를 느끼고 있을 때는, 귀를 몹시 쓰러뜨리며 입술도 부풀어 올라 송곳니가 완전히 드러난다. 귀를 뒤로 당기기 때문에 눈이 치켜 오르며 상대방을 옆눈

짓 해 본다. 우우 하고 낮게 으르렁 대는데 언짢은 도수가 낮을 때는 송곳니를 보이지 않고 으르렁대기만 하는 경우도 있다. 꼬리는 처져있는 경우, 위로 치켜져 있는 경우, 파르르 떨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 이런 때, 개는 대개 “나를 건드리지 마라. 혼자 있게 해라” 하고 말한다.

내가 길렀던 기슈우견(紀州犬) 지로는 너무 짓궂게 꾸짖으면 이따금 우우 하고 조그맣게 웅얼대어 자기의 불만을 표현했다. 그것은 마치 “이젠 알았소. 너무 욱하지 말란 말이요” 하고 말하는 것 같았다. 수상한 것이 다가올 경우 멍멍 하고 경보를 울리기 전에 우우 하고 낮게 웅얼덜 때도 있다. 불쾌감이 더욱 심해져서 “가까이 오면 물 테다” 할 때는 우우를 지나쳐 “꾸루룩” 하고 독기를 내뿜는다.

개끼리 만났을 때도 이런 소리를 내는데 지로가 몹시 화가 나서 상대방을 혼내주려 할 때는, 오히려 소리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으르렁덜 때는 공격하려는 것이라기보다

자기의 불쾌감을 상대방에게 보여 “씩 물러가라. 기어이 다가오면 물어뜯을 테다” 하는 위협 신호를 보내고 있는 셈이다.

당신도 잘 알다시피 “멍” 하고 짖는 소리가 있다. 무엇을 경계하고 있을 때 나오는데 이 “멍”도 모두 같은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다. 내 지로는 고양이에 대하여, 사람에게 대하여, 맞설 개에 대하여 저마다 다른 “멍”으로 응대하고 있었다. 그 차이는 글자로 나타내기 힘들며 늘 돌보아주는 주인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개와 주인을 연결하는 기반이 아닐까?

지로는 모르는 사람에게는 “멍 멍 멍” 하고 사이를 두어 짖었고, 아는 사람들에게는 “머멍멍멍” 하고 명량한 소리로 짖었다. 또 고양이에게는 강하게 “멍! 멍! 멍!” 하고 짖었으며, 맞수에게는 “머머머머멍!” 하고 격하게 짖었다.

무섭거나 위압을 느꼈을 때

꼬리를 뒷다리 사이에 감아 넣으며 엉덩이를 낮추고, 고개를 숙이고, 몸을 될 수 있는 대로 작게 하려 한다. 귀를 뒤로 젖히기 때문에 눈을 약간 치뜨게 된다. 너무 무서워 비명을 지를 때는 눈이 커지고 입을 크게 벌리고 온다.

개가 무슨 실수를 하여 주인에게 꾸중 들을 때도 꼬리를 늘어뜨린 채 엉덩이를 낮추고 귀를 늘어뜨리면서 슬금슬금 구석으로 간다. 이때 옆 눈짓 할 때가 있다.

고통·공포·슬픔을 나타내는 소리는 흔히 “깽” 하는 비명이다. 이것도 그 감정의 정도에 따라 세거나 약하거나 한다. 예컨대 실수하여 발을 밟혔을 정도의 고통이면 “깽” 하는 한 마디로 끝난다. 사람들이 “아야야” 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자동차에 치이거나 하여 몹시 아프면 “깽개앵 개앵 개앵” 하고 연거푸 비명을 지른다. 강아지의 경우는 발을 밟힌 정도로도 “개앵 개앵 개앵” 하고 콧소리를 내며 마치 울부짖는 아이의 울음소리와 비슷하다.



이 “깽” 하는 소리는 싸우다가 몹시 물렸을 때에도 내며, 요란한 소리에 놀라서 달아날 때에도 낸다. 주인에게 맞았거나 하여 슬프다고 느낄 때의 소리이기도 하다. 공포와 고통이 뒤섞였을 때는 비명이 크며 연거푸 소리를 낸다.

강아지는 자기가 태어난 집을 떠나 낯선 집에 갔을 때 밤이면 생가가 그리워서 울부짖기도 한다. 그런 때의 울음소리는 “개옹 히이히이 깽깽 깽깽 끼잉 개옹” 하는 소리이다. “집에 가고 싶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 하는 감정이라고 생각하면 틀

림없다.

고통을 나타내는 소리일지라도 배탈이 나서 배가 아플 때는 “깡” 하고 울지 않는다. 웅크린 채 이따금 “끼잉” 하고 조그맣게 웅얼대면서 아픔을 참는다.



상대방에게 행복했을 때

강아지는 큰 개가 자기의 냄새를 맡으면 땅바닥에 누워 배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은 온몸을 살살이 냄새 맡은 다음 아무런 짓도 하지 않고 가버린다. 강아지는 이런 태도를 할 때 오줌을 질끔 싸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모든 것을

행복하다는 태도이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도 해치지 않는다. 게다가 강아지는 어른 개와는 달리 젓비린내가 나기 때문에 어른 개는 냄새만으로도 구분할 수 있는 모양이다.

어른 개끼리인데 힘의 차이가 많이 날 때에는 약한 놈이 강한 놈 앞에 엎드리고 머리를 내민다. 약한 개는 썬 개가 냄새를 맡는 동안 땅바닥에 찰싹 엎드리고 얼굴만은 썬 개 쪽을 향하면서 몸을 딱딱하게 긴장시킨다. 꿈무늬 쪽의 냄새를 맡으면 뒷다리를 좀 들어 올리기도 한다. 썬 개는 다 검사하고 나면 그대로 가는데, 약한 개는 가만히 있을 경우와 꼬리를 흔들며 몸을 낮게 한 자세로 썬 개의 입을 핥으려 할 때가 있다.

상대방이 자기의 냄새를 맡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 못 되는 듯, 얼굴과 태도에는 불안한 표정이 나타나며 만일 도중에 달아나려고 하면 물리는 일이 많다. 몸을 상대방에게 준비하지 못하고 내미는 동작은 이리 에게서도 나타나는데, 그렇게 하면 썬 놈은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아 피

가 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서로 송곳니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늑끼리는 다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항복 신호가 분명하며, 상대방의 공격을 저지하게끔 되어 있다. 모든 동물에는 본래 저마다 이 저지 기구가 작용하나, 작용하지 않는 종류가 있다. 그것은 다름없는 우리들 사람이며, 낱낱의 싸움에서 큰 규모로 일어나는 전쟁까지 포함하여 온갖 수단을 써서 추악하게 상대방을 죽인다.

이것은 아마 사람이 너무나 생물답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리라. 단추를 누르기만 해도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경우, 상대방의 표정은 보이지 않아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죽일 수 있는 것이리라. 그리고 상대방은 보복 수단을 강구한다. 동물들은 싸울 경우 자기 몸에 갖춰져 있는 무기로 싸운다. 그것은 양식을 얻는 데에도 필요한 것이리라. 그들의 생활은 안전제일 주의이며, 시시한 싸움으로 자기 자신을 괴롭히다가는 자업자득으로 죽게 될

는지도 모른다.

사람도 자기의 능력만으로 싸울 때는 그다지 모진 짓을 하지 못하겠지만 자기 힘 이상의 무기를 가지자 생물답지 못하게 되고만 것이 아닐까? 그리고 지금은 자기가 만든 기계의 지배를 받고 있다. 게다가 사람은 서로 거짓말을 하여 상대방을 속이기 때문에 설사 상대방이 화평을 신청하더라도 서로 믿지 않는 악순환을 거듭해 온 탓도 있으리라. 이것들은 모두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자업자득의 업보이다.

동물들도 이따금 약은 꾀를 부리지 않는 것은 아니나 사람에게 견주면 단순하며 악질스러운 것은 아니다.

자신이 있을 때

“나는 힘이 세서 너 같은 것은 단숨에 물어뜯을 테다.”

이런 기분일 때 개는 네 다리를 힘 있게 디디고 발돋움을 한다. 꼬리에는 힘이 들어 있어서 위로 치켜올라간다. 입술은 꼭 다물리고 주름살을 만들지만 송곳니를 드러내지

는 않는다. 귀는 상대방에게 덤벼들 순간까지 뽀뽀 서서 앞쪽을 가리고 있다. 눈알은 움직이지 않고 상대방에게 쏠려 있다. 여느 때는 소리도 없으며 때로는 조금 으르렁덜 때도 있다. 이런 때의 개는 위험하며 개끼리일 경우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할 것 같은 싸움이 붙는다.

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이 뽀뽀를 드러내거나 귀를 뒤로 젖히고 있을 때가 사납고 무서운 때인 줄 안다. 그러나 이러한 표정은 앞에서 말했듯이 협박이나 경고를 말할 때, 또는 싸우고 싶지 않을 때에 나타난다. 그런 때 개의 경고를 무시하고 더욱 개에게 다가가거나 손을 내밀거나 하면 개는 이 이상 달아날 수 없다고 체념한다. 그리고 지렁이도 밟히면 꿈틀대는 격으로 맹렬히 반격해 온다. 말하자면 어쩔 수 없는 공격적인 셈이다.

그러나 자신만만한 때에 개는 그와 같은 경고나 협박을 빼고 대뜸 상대방을 공격한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사슴과 같은 먹이를 쫓아가서,

마지막 공격을 하려고 몸을 도사렸을 때의 표정과 마찬가지로이다.



상대방에게 몰래 다가가서 공격하려고 할 때

얼굴의 표정은 앞서 말한 것과 같으나 자세는 낮고 땅을 슬금슬금 긴다. 꼬리는 수평으로 뒤에 뻗어 있다. 상대방이 알아채지 못하고 있을 때 이쪽이 먼저 공격을 하려 할 경우의 태도이며, 지로가 장기로 삼았던 방법이다. 아무런 소리도 없다.

개가 길에서 딴 개와 만났을 때 보통은 이 공포와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뒤섞인 복잡한 기분이 된다. 어

느 쪽이 센가에 따라 여러 가지 표정이 나타난다.

서로 비슷하다고 보았을 때에 그들은 낮은 소리로 우우 하면서 털을 곤두세우고 어깨를 으쓱거린다. 그리고 발돋움을 하고 몸을 굳히고 걸 어간다. 그리고 전봇대나 풀숲에 오줌을 누고 상대방을 응시하면서 뒷 발로 거기에 흠을 뒹는다. 또는 일부러 상대방을 무시하고 딴 곳을 노려 보는 경우도 있다. 이것도 한 가지 시위이다. 이런 때는 입을 가볍게 벌리고 “워워!” 하고 으르렁대는 소리가 새어 나오지만, 이빨은 드러나지 않는다.

헤어지기 전에 개는 서로 상대방의 꼬무니 냄새를 맡으려 한다. 거기에는 향문선이라는 분비선이 있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각 개체 특유의 냄새를 맡기 위해서이다. 향문선은 고양이에게도 사자에게도 있다. 그것을 알고 어디의 누구인지를 개는 서로 조사하고 있는 것이다.

수컷끼리만 아니라 수컷과 암컷, 그리고 암컷끼리도 서로 이 냄새를

맡는다. 다만 수컷과 암컷이 만났을 때 암컷이 바로 순종의 자세를 하는 경우가 있다.

한 동물이 어떤 동작을 할 때 그 동작의 뜻이 잘 알려져 있을 경우, 딴 뜻이 거기에 섞여 있어도 그 뜻은 간과되기 쉽다. 말하자면 개는 기쁠 때 꼬리를 자꾸 흔든다. 그래서 꼬리를 흔들면 기뻐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반드시 그럴까? 잘 보면 개는 여러 경우에 꼬리를 흔들고 있다. 사냥개가 먹이를 공격하고 있을 때는 꼬리를 흔든다기보다 쉴 새 없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적에게 덤벼들거나 물러나거나 적의 공격을 피하거나 할 때, 흔들리는 꼬리는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방향타의 구실을 하며 또 빠져나갈 길의 장애물을 찾아내는 구실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수상한 것을 보고 짚을 때에도 꼬리가 자꾸 흔들린다. 사냥개는 냄새를 맡혀두면서 가거나, 먹이를 공격하는 때 또 다른 기쁨을 느

끼는 모양이다. 그러나 불안한 것을 보고 짚어대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가장 틀리기 쉬운 것은 싸움개의 경우이다. 싸움을 시키는 것은 동물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고 이전부터 흔히들 말한다. 이에 대하여 싸움개를 좋아하는 사람은 “싸우는 개는 싸우면서 꼬리를 흔들고 있으니 기뻐하고 있는 것이다. 싫어하는 개를 억지로 싸우게 하는 것이 아니다. 개가 좋아서 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한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이 개는 어떤 모진 감정의 변동이 있을 때 꼬리를 흔든다. 기쁘지 않아도 꼬리를 흔드는 것이다. 싸움을 하는 개의 꼬리는 흔들린다. 그렇지만 그들이 기뻐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응석을 부릴 때

몸 전체가 유연하고 꼬리를 자꾸 흔들며 상대방에게 몸을 비벼대거나 얼굴을 핥으려 한다. 귀는 눅혀

있으나 눈빛은 온화하다. 끄끙 콧소리를 낼 때도 있다. 개들은 주인에게 응석을 부릴 때 언제나 얼굴을 핥으려 한다.

개끼리 인사를 할 때도 그렇다. 강아지는 어미개에게 응석을 부릴 때, 동료끼리 놀 때, 상대방의 입술을 자꾸 핥는다. 이것은 강아지가 어미에게 먹이를 달라고 조르는 동작에서 온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늘 이상하게 생각한다. 종류가 다르고 생김새도 다른 동물끼리 만나서 서로 상대방의 입이 입이리는 것을 안다는 점 말이다. 이것은 또한 먹이를 사냥할 경우에도 들어맞는다. 육식 동물은 먹이에게 덤벼들 때 아무 데나 무는 것이 아니라 급소를 잘 알고 거기를 노린다.

이리오모테 살췍이와 같은 작은 고양이는 새의 목뼈 사이를 이빨로 물어 척수에 상처를 내어 죽인다. 사자는 산양이나 얼룩말의 목 또는 코를 물어, 그야말로 숨통을 끊어 질식사킨다.

새끼는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먹이를 잡는 방법을 배운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은 코나 목을 물면 상대방의 숨통을 끊을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자기의 코도 상대방의 코도 숨 쉬는 데에 쓰이는 요긴한 것임을 알고 있는 것일까? 이런 사소한 일 하나만을 보더라도 자연 세계에는 이상한 일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이 여겨진다.

이 이야기는 좀 빛나갔지만 개는 응석을 부리거나 무엇을 독촉하거나 할 때는 독특한 소리를 낸다. “히이히이 핑핑” 하고 콧소리를 내는 것은 무엇을 호소할 때이다. 요구하는 정도에 따라 목소리가 세고 약하고 다르다.

어쩐지 쓸쓸해서 동료가 왔으면 좋겠다든가, 주인이 와서 같이 놀아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만 하여도 이런 소리를 낸다. “산책할 시간입니다” 하고 재촉할 때도 있고, 배고프다고 알리는 것일 때도 있다. 오줌을 누고 싶을 경우나, 비가 와서 개집에 들어가고 싶을 때에도 운다.

그 상황은 일상생활에 따라 각양

각색이라 주인이 판단하여 줄 필요가 있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로 불만과 요구를 호소하고 있으나 주인이 응해주지 않으면 차츰 소리를 크게 낸다. “깨옹 멍멍” 하는 소리가 섞인다. 사슬을 끌어당기기도 하고 문이나 바닥을 긁기도 한다.

응석과 비슷한 것인데, 더욱 적극스러운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핑핑 히이히이” 하는 소리이다. 이것은 어느 쪽이나 하면 불만을 호소하는 소리에 가깝다. 밥을 먹고 싶을 때 지로는 한 번 “멍, 후웅” 하고 콧소리를 냈다. 지로가 너무 시끄럽게 울면 주인이 “시끄러워” 하고 꾸중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멍” 하고 소리를 낸 다음 황급히 개집에 뛰어 들어간다. 그 광경은 사슬이 울리는 소리로 눈에 선했다.

기쁨을 나타낼 때

동작은 응석을 부리는 것과 비슷하나 좀더 감정이 양분되어 있으며 동작이 격렬하다. “히이히이 깡깡” 고함치는 소리가 따른다. 꼬리를 몹

시 흔들며 귀를 세웠다 눕혔다 한다. 입을 벌리고 가쁜 숨을 쉬며 몸을 비비 꼬기도 하고, 뛰어올라 얼굴을 핥으려고도 한다. 상대방의 둘레를 짱충짱충 뛰며 돌기도 한다. 개에게 있어서 상대방의 입을 핥는 것은 친애의 정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러나 이에 응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개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인축(사람과 가축) 공통의 전염병도 있고 불결하기 때문이다. 딴 방법으로 그들의 인사에 충분히 응답해 줄 수 있다.

이상이 큰 줄거리로 구분한 개의 표정이다. 그밖에 개는 그들끼리 의사소통 방법으로서 자취의 냄새를 맡기도 한다. 거리에서 흔히 보는 것과 같이 전봇대에 오줌을 싸는 것이 이에 따른다. 야생 개인 이리와 코요테도 이런 행동을 한다. 개의 오줌 속에는 개마다 특유한 냄새가 나는 물질이 들어 있어서 앞의 개가 오줌으로 표적을 만든 것을 딴 개가 와서 맡으면 상대방의 성별, 힘의 세기, 새로 온 놈인지, 어느 놈이 왔는지를 알 수 있다. 동물들은 사람에게

길러지지 않을 경우 자기의 영역을 정하기 때문에, 그 영역이 있는 곳에 똥오줌을 깔기거나, 몸을 비벼 대어 자기의 표적을 만들고 다닌다.

개는 거리에서 전봇대의 냄새를 맡은 다음 반드시 자기의 오줌을 깔긴다. 이 영역 표시는 수개가 더 많이 하는데 암개는 발정기에 들어가면, 평소보다 자주 여기저기에 오줌을 싸며 다닌다. 자기의 정보를 흘리고 있는 것이다.

이 오줌을 싸는 동작도 재미있다. 상대방이 분명히 센 개일 경우 약한 개는 마지못해서인 것처럼 오줌을 조금만 싣는다. 자기가 세다고 생각하면 높은 곳에 오줌을 싣는다. 그리고 여러 번 싣고 냄새가 많이 나게 하려고 한다.

개들은 이렇게 하여 산책 길도 있는데, 묶여 있는 개는 이 산책 길이 자기의 영역이라고 여길 것이다. 개가 산책을 좋아하는 것은 운동하고 싶다는 것 말고도, 이 개 세계의 정보를 알고 싶다는 소원이 있기 때문 이리라.

우리가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보고 세상의 움직임은 알듯이 그들은냄새로 알아내고 있는 것이다. 자기의 영역 안에 사는 이웃의 동향을 알고 싶어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모퉁이에 귀여운 소녀가 있고 저쪽 마을에는 건방진 사내 녀석이 있다.

‘오늘은 어떨까, 어떤 뉴스가 들어 있을까, 얼른 그것을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며 그들은 산책하러 갈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기뻐할 때 개가 짖는 소리는 어떤 것일까? “깨이잉 깨웅” 하는데 언뜻 듣기에는 비명과 비슷하나 절박한 느낌이 없다.

기분이 좋을 때일지라도, 아니 기분이 좋아서 야성으로 돌아와 있기 때문에 개는 이따금 먼 하늘을 보고 짖는다. “워어오오” 하는 소리로 짖는데 야생 시절에 동료들을 부르던 습성이 남아있는 것일까? 밤중에도 종종 짖는다.

또 이와 비슷한 소리가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 하모니카 소리들로 일어날 때도 있다. 우리 집 근처에서

길렀던 존이라는 개는 하모니카를 불면 곧 “워어오오” 하고 짖으며 달려와서는, 악기가 울리는 동안 함께 합창하고는 하였다.

동물들은 발생기관의 구조 차이에 따라, 또 종류에 따라 목소리는 다르나 공통점도 있다. 불쾌감이나 분노를 나타내는 소리는 개나 고양이나 사자나 모두 같은 웅얼거림이다. 어느 동물이나 화가 난 소리는 격하다.

그와는 반대로 기분이 온화할 때는 상냥한 소리를 내는데, 이럴 때면 아주 기분이 썩 좋아 보인다.

이전에 내가 기르던 족제비 푸스카는 기분이 언짢아지면, “사야” 하는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내었고, 화가 나면 “챗” 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기분이 좋을 때는 “끄르르르” 하는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는 아주 귀엽게 들렸다.

*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

좋은 책을 이렇게 번역하지 맙시다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편집부

자유를 향한 행진(자유에의 행진)

에드 클레이튼

지문사, 이상영 옮김

2. 죽음 -오후 6시 3분 전

■ 이제 시작이었는데 오, 주님

1968년 4월 4일 멤피스에서 보 내는(의) 화요일 오후 6시 3분 전, 마틴 루터 킹은 목고 있던 모텔 방의 바깥 난간으로(발코니로) 걸어 나오고 있었다.

무척 긴 하루였다. 이제부터 새로운 집회에 참석해야 하고 초대받은 저녁 식사(석식)에도 빠질 수가 없었으므로, 많은 사람이 모인 곳(장소)에 가기 전에 신선한 공기를 마시러 바

깎 난간으로(발코니로) 나선 것이다.

로레인 모텔 맞은편의 베시 브리워 여관에 묵는(투숙한) 묘한 사람은 자기 방문을 굳게 잠근 뒤(후) 목욕탕으로 들어가 가방을 열고 그 안에서 총을(총기를) 꺼내어 짜(조립을) 맞췄다. 잘 닦인 암살용 총이었다.

숙박신고서(숙박부)에 ‘존 윌러드’라고 적은 이 사람은 창문에 총을 기대어 조심스럽게 목표물을 찾았다.

암살범과 로레인 모텔의(과의) 거리는 겨우 62m(205ft)밖에 되지 않았다. 그 입가에는 특유의 웃음이(미소) 개 흐르고 있었다.

마틴 루터 킹은 풀색(초록색) 바깥 난간으로(발코니로) 나와 큰 숨을 쉬고는, 난간에 기대어 밑에서 그의 측근

들이 어울려 이야기 나누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때 주차장 근처에서 제시 잭슨 목사(그는 킹의 비서 노릇(역할)을 해주는 사람이었다)가 어떤 사람과 이야기하다가 킹을 보고는 가까이 걸어와 그를 소개해 주었다.

“목사님, 이분은 벤 브란츠 씨입니다.”

제시 잭슨이 말했다.

“아,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분이 오늘 저녁 집회에 들어가기 전에 특별 연주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오, 그렇다면 ‘고귀한 신’을 특별히 연주해 주시구려.”

킹은 브란츠에게 소리쳤다.

“그 곡은 너무도 훌륭한 곡이 아니요, 벤 브란츠?”

“네, 훌륭한 음악입니다.”

‘내 손을 잡으시는 고귀한 신’은 킹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 중의 한 곡으로 그 찬송가의 글귀(문구)는 이런 것이었다.

내 갈 길이 험난하고 외로울 때
고귀한 주님 가까이 계시다네
내 생이 마지막을 기다릴 때
내 외침 들으시고 내 기원 들으시고

내가 헤매지(망항하지) 않도록 내 손을 잡으시니

내 손을 잡으시는 고귀한 주님
나를 주님의 쉼터(안식처)로 인도하리

베시 브리워 여관에 묵던(투숙한) 암살지는 천천히 총의 조준대에 눈을 가져다 뒀다. 노리고 있는 목표물에 바로 맞출(명중만이 있을) 뿐이라는, 살기에 가득 찬 그는 천천히(서서히) 방아쇠로 손가락을 가져갔다.

맑고 차가운 공기가 건너편 바깥난간(발코니)에 서 있는 마틴 루터 킹에게 감돌았다. 신선한 공기를 원했던 그였기에 한 번 더 큰 숨을 쉬었다. 밑에서 킹을 지켜보던 운전사가 입을 열었다.

“가실 때 겹웃음(코트를) 입고 가셔야겠습니다.”

“그러지. 알겠네.”

킹은 대답을 하면서 허리를 펴고 무언가 다짐하는 듯이 그의 방으로 들어서려고 곳곳이 걸었다.

베시 브리워 여관의 암살범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6시 3분 전이었다. 그의 오른손 집게손가락이 천천히 차가운 금속 방아쇠를 잡아당겼다.

마침(순간) 로레인 모텔 바깥 난간(발코니)에서 방으로 들어가려던 마틴 루터 킹은, 들어서기 전에 턱과 목에 총알(총탄)을 맞고 아무런 외마디소리(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쓰러졌다.

암살자는 다시 그를 겨누어(조준하)에 쓸 필요가 없음을 알고, 급히 총을 들고 목욕탕에서 나와 준비한 마분지에 아무렇게나 싸서 작은 가방에 담은 뒤(후) 허둥지둥 여관을 뛰쳐나갔다. 밖으로 뛰쳐나온 암살자는 총이 들은 작은 가방을 길가에다 아무렇게나 버리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로레인 모텔은 눈 깜짝할 사이(일순간) 벌어진 일에 놀랐다(경악을 금치 못

했다). 마틴 루터 킹의 측근자들은 급히 병원에 전화를 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 목고 있던 손님(투숙객)들은 모두(전부) 이 엄청난 일(사태)에 놀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었다.

제시 잭슨 목사는 킹의 머리를 자기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고 기도를 드렸다. 법무국에 일하는(근무하는) 한 백인이 자신의 방으로 달려가 수건을 가지고 와 다친 곳을(상처 부위를) 조심스럽게 닦으며 눈물을 흘리면서 중얼거렸다.

“케네디, 케네디, 그때를 일깨워주는군.”

“이런 비극을 주시다니.”

“이제 시작이었는데 오, 주님.”

앨프 애버나티는 킹과 스스럼없는(개인적으로) 가장 가까운 동무(친구)이며 남부 기독교 지도자회의에 중심이 되는 목사였는데 그는 킹을 구하기에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았다.

애버나티 목사는 동무(친구) 옆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마틴, 마틴, 마틴…….”

슬픈(비탄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울

렸고 생명의 불꽃이 킹의 몸(육체)에서 천천히 꺼져가고 있을 때 구급차(앰블런스)가 로레인 모텔에 달았다(도착했다).

숨을 거두어가는 킹을 근처의 성 요셉 병원 응급실로 옮긴 시간은 오후 6시 16분이었다. 50분 동안 12명으로 이뤄진(구성된) 백인 의사 수술반(팀)은 킹을 구하려고 모든 힘(노력)을 다했다. 신만이 할 수 있는 그 다음까지(까지의) 노력을 말이다.

암살자가 쏜 총알(탄환)은 킹의 등뼈(척추) 사이를 갈라놓았다. 다행히 하느님의 가호로 킹이 살아난다 해도 그는 목 아랫부분의 몸을(육체를) 영원히 마비된 채 살아야 할 것이었다.

나중에 수술한 의사 중의 한 사람이 말하기를, 킹이 병원에 왔을(도착했을) 때 이미 몸은(육체적으로) 숨을 거둔 상태였다고 했다.

그날 오후 7시 5분에 정의의 지도자인 마틴 루터 킹 2세의 죽음이 정식으로 발표되었다.

신문 기자들은 킹의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를 알려고 아우성을 쳤다. 병원에서 마지막까지 킹을 지켜본 한 측근은, 기자들에게 자신들이 킹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라며 울어서 통통 부은 얼굴로 말했다.

“우리가 좀 더 신중해야 했는데 모든 게 우리(우리의) 잘못입니다.”

“킹 목사님은 언제나(항상) 암살의 위험 속에서 사셨지만, 그래도 그 누구도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발생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시다. 모든 게 우리(우리의) 잘못입니다.”

많은 동지들이 이렇게 말했다.

애틀랜타에 있던 코레타 킹(킹의 부인)은 멤피스에서(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부인에게 킹이 다쳤다고만(부상을 당했다고만) 말했다. 그때 애틀랜타의 시장인 이반 알렌 2세도 킹의 저격 소식을 들었다. 시장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급하게 킹의 큰집(저택)으로 가서 부인을 데리고 공항으로 달렸다.

벌써 특별기가 킹 부인을 다친(부

상당한 남편 걸로 데려다주기 위해 공항에 기다리고(대기하고) 있었다. 시장의 전용차가 안개로 자욱한 비 오는 거리를 내달렸다(질주했다). 시장의 차가 공항에 다다라서(도착해서) 킹 부인이 비행기에 오르기도 전에, 어떤 인사가 시장에게 컷속말로 킹이 죽었다는(킹의 사망) 소식을 전해주었다.

이반 알렌 시장은 놀라움에 망설이다가 공항 정류장(터미널)을 빠져나가려는 킹 부인에게 의사들이 남편의 목숨(생명)을 구하지 못했다고 말해주었다.

킹 부인은 멍하니 무언가를 생각하더니 아이들과 함께 밤을 보내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시장에 말했다. 그녀는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자기 눈으로 남편의 주검(시신)을 직접 보기 전에는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는 굳은 믿음(신념)이 생겨났던 것이다.

‘죽다니, 죽음이라니! 우리 그이가 죽다니. 그럴 리가 없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멤피스 경찰은 사건이 터지자 곧 (즉시) 로레인 모텔 둘레(주위)를 막는 (봉쇄하는) 한편 범인 가려내기(색출)에 들어갔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범인으로 보이는 사람을(자물) 본(목적한) 사람이 나타났고, 범인이 버리고 간 총이 든 가방도 발견했다. 어떤 사람은(목적자는) 범인이 베시 브리워 여관에서 나오는 것을 봤다고 했으며, 또 다른 사람은(목적자는) 범인이 흰색 머스탱을 타고 사라졌다고 했다.

경찰은 바로(즉각) 전국에 지명 수배를 쫓다. 범인 얼굴과(동티주 빛) 범인이 타고 간 흰색 머스탱을 집중해서(집중적으로) 찾으라고 했으며, 연방 수사국(FBI)에서도 범인을 잡기 위해 멤피스로 노련한 수사관들을 급파했다.

그러나 암살범은 그렇게 쉽게 잡히지 않았다.

워싱턴에서는 존슨 대통령이 각료들과 함께 베트남 전쟁에 관해 의논을 하고 있다가, 마틴 루터 킹의 암살 소식을 듣고 놀라워하며(놀라움)

을 금치 못하며) 법무 당국자에게 사건을 자세히 그리고 신속히 처리하라고 명령했다.

그때(당시) 존슨 대통령은 몹시 고달픈(피곤해 있는) 상태였다. 겨우(불과) 4일 전에 대통령은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여 세상을 놀라게 했는데 그것은 그가 그만큼 지쳐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때의(당시) 의 가장 큰 문제는(세계 모든 나라의 관심이 온통 쏠려 있던 문제였다) 베트남과 나폴(과의) 평화 협상에 관한 일이었다. 대통령은 그 문제를 의논하러 국방문제 담당자와 회담하러(회담차) 하와이로 날아가게(비행하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 하와이로 가기 전에 각료들과 회담 내용을 먼저 의논하고 있던 참이었다. 그때였다.

“대통령 각하, 마틴 루터 킹이 암살당했습니다.”

이 보고가 비서한테서(비서를 통해) 들어왔다.

존슨 대통령은 떠나려던 하와이 출장을 바로(즉각) 없앴다(취소했다). 그러고는 바로 애틀랜타에 있는 킹 부

인에게 전화를 걸어 슬프고 안타까운(애석한) 마음을 전하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다음으로 TV 방송망으로(방송망을 통해) 온(전) 국민에게 크나큰 슬픔을 전하며 고인의 애도를 비는 연설을 했다.

“미국은 너무나 갑작스러운 미친(광폭한) 살해로 말미암아 그 충격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TV 연설 마지막 구절은 “모든 미국인은 마틴 루터 킹의 믿음을 바탕으로 하여 평화를 추구하고 발전시키자”였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거운동에 열심이던 로버트 케네디 상원의원도 킹의 암살 소식을 듣고(접하자) 맹렬하게(치열하게) 피가던(전개하던) 선거운동을 뒤로 미루고, 존슨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호소에 따라 조용히 애도의 뜻을 나타내며(표하며) 선거운동을 벌이던 곳에서 가까운 인디애나폴리스의 빈민가를 찾았다.

■ 검은 별은 떨어지고

“정말 슬픈 일이군요.”

케네디 상원위원은 거리를 지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에게마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

“네, 슬픈 일이지요 의원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오늘 밤 총에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흑인이며 불의에 과감히 대항하여 정의를 쫓아낸 분이셨습니다. 증오와 분노를 폭력으로 풀어내지(행하지) 않고 폭력 없이(비폭력으로), 그 큰 힘을 좋게 평화로써 다스리려던 분이었는데 그는 그만 백인의 손에 암살을 당했습니다.”

케네디 상원위원은 사람이 여럿 모이면 이렇게 슬픔을 말했다.

많은 미국인들은 4년 전, 대통령이던 존. F. 케네디의 암살과 지금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암살을 똑같은 정도로(차원에서) 생각하며 슬퍼했다(비통함을 금하지 못하였다).

많은 유럽 신문과 방송들은 이 날 벼락(청천벽력) 같은 멤피스의 슬픔을 ‘다시 나타난(재현된) 달라스(달라스는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한 곳(장소)임)’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마틴

루터 킹을 ‘흑인의 대통령’이라고 크게 써서(대서특필해서) 머리기사(톱뉴스)로 전했다.

마틴 루터 킹의 죽음은 지금까지 미국에서 볼 수 없었던 분노로 퍼져나가 그 슬픔은 온(전) 국토에 흐느낌을 주었다. 멤피스, 워싱턴, 시카고, 디트로이트, 볼티모어, 그밖(외)의 많은 도시에서 분노에 가득 찬 흑인들이 거리로 뛰쳐나오기 시작했다.

많은 도시에서 든든히 차려입은(중무장을 한) 화난(분노의) 집단들이 미국의 수도로(향해) 와서 백악관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런 갑작스러운 일(돌발 사태)에 놀란 경비원들은 일(사태)의 심각함(성)에 더 많은 경비병을 한데 모아(동원하여) 기관총으로 백악관을 지켜야(보호해야) 했다.

지금까지(거의 4년을 넘게) 워싱턴에서 살던 흑인들은 다른 도시에서 일어난 많은 흑인 자리 높이는(지위 향상) 운동에도(불구하고) 조용히 자기의 직분에 일(종사)하며 살아오고 있던 중이었다. 그렇지만 이번 킹의 암살 소식에는 모두가 분노에 차 거

리로 나와 불타는 가슴을 억누르지
(억제하지) 못하고 폭동을 일으킬 꺾새
(기미)를 보였다.

그런데 이런 군중의 분노에 붙어
서(편승하여) 그 힘을 움직이려는 스토
클리 카마이클(폭력을 내세우는 흑
인의 지도자)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모이던 군중들은 카마이클의 충고
가 귓속에서 웅웅거리며 들려오는
걸 막을 수가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 무기를 갖고 오시
오. 모두 빨리 가시오.”

카마이클이 소리를 쳤다.

“백인이 방해를 하면 죽여라. 이
젠 어떤 거리에서도 더 이상 흑인의
피가 흘러서는 안 된다. 빨리 집으로
가서 저마다(각자의) 무기를 가져오
라.”

물론 그 가운데(중의) 몇몇 사람은
그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킹이 바라는 것은 분명 그런 폭동이
아니었으니 말이다. 그러나 그의 말
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분노와 억압
에 짓눌려 있던 10대들은 상가의 진
열장을 부수고 약탈을 저지르며(자행

하며) 불을 지르기 시작했다. 이런 미
친 듯이 날뛰는(광란의) 폭동은 새벽
까지 이어져(계속되어) 공포에 떨게 하
였다.

날이 밝자 폭동이 멈추는 것 같더
니 몇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시끄러
워져(소란이 시작되어) 끝없이 흠치고 불
지르는 일들이(약탈과 방화의 연속이) 금
요일까지 이어졌다(계속되었다).

이런 폭동은 오히려 명절을(카니발)
을 떠올리기도(연상시키기도) 했다. 폭
도들이 상점을 약탈해 새 옷과 새
신을 신고 거리를 누볐기 때문에 그
런 느낌(인상)을 주는 것도 무리는 아
니었다.

그런 가운데는 킹의 양심을 하소
연(호소)하는 흑인도 많았다. 그중 시
카고에서 한 흑인 여인이 약탈자들
앞에 서서 그들을 말리려(제지하려) 했
다.

“제발 이래서는 안 돼요. 가게 밖
으로 나가세요. 이 물건들은 모두 주
인이 있어요. 이런 행동이 과연 옳은
가요? 당신들이 킹 목사님을 애도한
다는 것이 이런 약탈을 저지르는(자

행하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우리의) 이웃 가게를 불태우고 노략질한다고 해서 우리(우리의) 문제가 풀립니다(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사리를 판단하시고 킹 목사님의 말씀에 따른 행동을 하십시오.”

이렇게 호소하는 흑인도 있었지만 거의 모든(대부분의) 흑인들은 폭력과 악탈을 저지르느라(자행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옷가게, 술집, 식료품점들(등)은 모조리 털리고 불에 타버렸다.

■ 검은 피는 성난 파도처럼

마틴 루터 킹이 암살당한 2주 동안 미국의 168개 도시에서는 질서없이(무질서의) 혼란을 겪어야 했고, 그 때문에(그로 인해) 연방정부는 72,880명의 군인을 보내(투입해서) 폭동을 억눌러야(진압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으며, 2만 4천 명이나 체포하여 죄과를 물어야 했다.

이렇게 많은 도시의 폭동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은 (사망자는) 43명뿐 이라는데 행정부 요인들이 안심을

하는 눈치였다. 그만한 정도의 폭동이라면 수많은(무수한) 희생자가 나올 것이라 걱정을 하고 있었다. 게다가 몇몇 흑인 지도자(힘을 주장하는)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절대 흑인과 백인(흑백) 사이(간)의 인종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안심하며 흑인들에게 진정을 호소했다. 행정당국은 좀 더 신중하려고 애썼다(노력했다). 그 증거로 경찰과 군대는 4년 동안 수많은 소란을 진압하여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분히 힘으로 제압할 수 있었지만, 절대로 폭도들과 마주(정면으로) 대결하지 않게끔 한 것이다. 또 체포된 사람 중에 죄가 없다고 인정되면 재빨리 풀어주었다(석방시켰다). 더구나 넓은 지역에서 일어난 폭동이니만큼 군대보다는 더 좋은 무기로 폭동을 진압해야 했다. 그래서 군대와 행정당국이, 흑인들도 사람다운(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자고 시위하는 흑인들을 진정시켰다.

몇몇 도시에서는 고위 공직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

이(개인적으로) 몸소(직접) 부딪쳐서 이 이야기(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뉴욕의 존 V. 린드세이(John V. Lindsay) 시장과 클리블랜드의 칼 스토크스(Carl Stokes) 시장은 몸소(직접) 긴장과 분노의 자리를(현장을) 찾아가 데모 군중과 이야기(대화)를 나누었다.

이 두 (명의) 시장은 그곳(현장)을 찾아가 약탈의 처참함을 자기 눈으로(직접) 보았고, 그런 흑인들에게도 동정을 나타내며(표하며), 남달리(특히) 마구 날뛰던 젊은이들에게는 제발 침착하라고 격려 아닌 호소도 하였다.

또 다른 도시에서는 ‘5%의 사람들’ ‘검은 표범’ ‘연합군단’이라 히는(불리는) 젊은 흑인 모임(그룹)들이 손수 이웃을 사랑하자는 운동(캠페인)까지 벌였다. 이렇게 평화를 갈구하는 호소가 여러 군데에서(서) 울려 나오자 이성을 잃었던 군중들도 천천히(서서히) 자기 자신을 찾아갔다. 킹이 죽은 뒤에(이후) 생기(발생한) 이 폭동이 얼마나 처참하고 무서웠는지는(공

포를 조성했는지는) 시간이 흘러 워싱턴 DC 한 초등학교 학생들의 그림에서 또렷이(역력히) 나타났다.

미술 시간에 몇몇 아이들이 집과 건물이 불타오르거나 약탈당하는 상점 모습을 그린 것이다. 또 다른 아이들은 깨진 유리창과 상가 앞 처참한 형편(광경)을 그렸고, 어떤 그림은 약탈자들이 물건을 한 아름 안고 나오는 거리의 모습을 그리기도 했다.

또 다른 학급에서는 글쓰기 시간에 아이(아동)들에게 자유로운 글감(소재로) 글(작문)을 쓰게 했다.

‘이제 난 대통령이 되고 싶다. 아니, 물건을 사고(쇼핑을 하고) 싶다.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난번 같은 무서운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다.’

한 아이(아동은) 이렇게 물건이 필요하자 장보기(쇼핑), 돈, 다음 폭동을 떠올렸다(연상하였다).

‘백인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죽였다. 백인과 유색인을 돕는 목사님을 죽였다. 난 백인들의 상점을 보수는(파괴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다.’

이런 글로 타오르는 흑인의 분노를 나타내기도 했다.

‘킹 목사님은 이런 폭동을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굉장히 슬프셨을 것입니다’고 쓴 아이(아동)도 있었다.

‘내가 본 것 중에 가장 슬픈 일이었습니다’고 한 아이(아동)의 글도 있다. 또 이런 글도 있었다.

‘늙은 흑인 여자가 불 속에 뛰어 들어 사람을 구하자 백인도 함께 흑인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보아 온 것 중에 가장 훌륭한 일은 백인이 유색인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킹 부인은 남편이 죽고 나서도, 장례식이 이어짐(계속됨) 동안에도 남편을 대신하여 마음 아프지만(침통한 마음으로) 회의에 참석하였다.

“저는 그를 사랑하고 존경했던 여러분들이 남편의 꿈을 이루어 주기를 바랍니다.”

킹 부인은 회의에서 호소했다.

“그럼 계획을 실행하지요.”

“저도 가겠습니다.”

목요일 킹 부인은 세(3명의) 아이들과 맴피스로 갔다(향했다). 거기서 마틴 루터 킹이 죽기 전에 계획했던 ‘청소부들의 행진’을 남편 대신 이끌었다. 이 행진은 킹이 바랐던 대로 평화롭게 나아갔다(진행됐다).

검은 상복을 입은 킹 부인은 장엄한 행렬에 참가한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참된(진정한) 자유를 얻고 평화로운 사회를 세우기까지(진실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할까요? 얼마나 오랜 세월이 흘러야 그런 사회가 될까요? 만일 우리가 영(靈)을 얻고 이번 경험을 진실로 깨닫는다면 이 나라는 정의와 평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참(진정으로) 형제가 되는 사랑에 넘치는(우애의)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

[알] [립] [니] [다]

* 2024년 우리말 지킴이와 해살꾼 발표문을 박 문화 공동대표님이 도와주셔서 움직그림으로도 만들었습니다. 보시고 널리 퍼시면 고맙겠습니다.

1. <https://youtu.be/0JbWipKH2-M?si=EOASUNW7eXh7RWJQ> 우리말 해살꾼 발표 움직그림

2. <https://youtu.be/FO4CEzpC8ZQ?si=axOmx7ySb3hUJtG> 우리말 지킴이 발표 움직그림

* 한글단체들은 한글이 태어난 곳인 경복궁의 광화문에 한글현판을 달고 한글을 빛내자고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한글날에는 유인촌 문체부장관이 한글단체 대표들과 함께 광화문에 걸린 한자현판을 떼고 한글현판을 달자고 다짐했습니다. 종로구의회(의장 라도균)는 11월 1일 광화문에 걸린 한자현판을 떼고 한글현판을 달자는 건의문을 국가유산청과 국회에 보냈습니다.



▲ 광화문 앞에서 모인 종로구의회 의원들

* 문화재청은 광화문에 40년 동안 걸린 한글현판을 떼고 한자현판을 달라고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밝히는 움직그림을 만들어 알립니다.

<https://youtu.be/wzyBvorgd5Y?si=2cXHYKxxa4F8S1rk> 문화재청이 국민을 속인 일곱 가지 움직그림

* 행정안전부는 세종대왕이 태어나신 5월 15일은 내년부터 국가기념일로 정하기로 하고 입법예고 했습니다. 새해부터는 세종대왕이 태어난 서울에서 기념행사를 크게 할 것입니다.

* 회계 보고 (11월 20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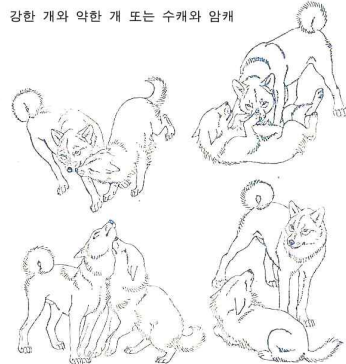
- 10 / 25 임관혁 1만원
- 10 / 29 이정호 3천원
- 11 / 01 남원석 1만원
- 11 / 15 이재팔 1만원
- 11 / 20 조언년 5만원

회보 만드는 값은 1권에 1,700원씩(200부+우편) 138호 회보 만드는데 340,000원이 듭니다. 저번 호에 부족한 돈 44,000원을 합하면 384,000원입니다. 이번에 회비로 들어온 돈은 83,000원이고 회보를 만드는데 301,000원이 모자랐습니다.

* '우리말 우리얼' 회비 보내실 곳

입금계좌 : 우체국 300731-01-001609
 예 금 주 : 이정우 (이오덕학교)
 누리 집 : <http://cafe.daum.net/malel>

* 1권에 1,700원. 1년에 6부가 나옵니다 *
 회보 구독료 : 1년에 10,000원입니다.



우리말
우리얼

제
138
호

2
0
2
4
년

12
월
호

우리말살리는
겨레모임